https://doi.org/10.35573/JKSC.33.1

‘한국선도 · 중국도교 · 한국도교’ 구분론: 한국선도 변형태로서의 중국도교 연구 방향 제안

석상순*

Ⅰ. 머리말
Ⅱ. 2000년대 ‘한국선도’ 연구의 등장 배경
Ⅲ. 한국선도 · 중국도교 · 한국도교의 내용 및 영역 비교
Ⅳ. 한국선도 자료는 끌어안고 연구성과는 외면하는 한국도교
Ⅴ. 맺음말: 한국선도 변형태로서의 중국도교 연구 방향 제안

국문요약

2000년대 초반 학계에 ‘한국선도’라는 새로운 학술 개념어와 학문분야가 등장하였다. 본고는 한국선도를 중심으로 중국도교 및 한국도교와의 상호간 개념과 영역을 비교한 연구이다. 그간 한국의 선도문화에 대한 인식은 유교문화 내지 서구인 시각으로 규정되어 저급한 샤머니즘[巫]으로 폄훼받기 일쑤였으나,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 및 연구성과는 선도문화가 샤머니즘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신선문화 · 신선사상[仙]이라는 사실 및 동북아 신선문화의 시원과 전파의 주체가 한민족에게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근대 이후 한국선도 연구는 두 경향이 있어 왔다. 하나는 신채호 이래 한국선도가 중국도교와는 차별화되는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라는 주체적 입장에서의 연구이고, 다

* 창원국학원 원장

른 하나는 이능화 이래 한국선도를 한국도교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연구하는 입장이었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양적으로는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전자의 학풍을 계승하고자 하는 선학들의 연구가 이어져 왔고 이에 힘입어 '한국선도'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선도는 기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 및 철학(사상), 역사 등을 포괄하는 한민족 고유의 사상 체계를 말한다. 반면에 중국도교는 신선장생사상을 기반으로 노장사상 및 유교・불교와 여러 민간신앙의 요소들을 받아들여 형성된 종교이다. 전자는 삼원오행론 철학을 기반으로 성통・공완하여 홍익인간・재세이화한 연후에 조천한다는 신선문화, 곧 '신선공완사상'을 갖고 있다. 후자는 음양오행론 및 불로장생하여 우화등선하려는 '신선장생사상'을 갖고 있다. 한국선도는 선도철학의 정수를 담은 경전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수행, 강인한 역사의식 등을 기반으로 선도사관이 형성되었다. 반면에 중국도교는『도장』이라는 방대한 경전을 갖고 있을 뿐 역사의식이 미비하고 사회적 실천의식도 없어서 도교사학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한국도교는 중국도교와 거의 비슷하다.

2000년대 초 이래 '한국선도' 학문분야가 신생하여 분립하고 있다. 한국도교는 한국선도의 분립을 수용하지 않고 한국도교의 도장 편찬을 위해 한국선도의 경전 및 사서를 끌어안고 있다. 반면에 그간의 한국선도의 연구성과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교는 한국선도 연구성과를 대범하게 인정하고 한국선도의 변형태로서의 중국도교 연구를 제안한다. 이유는 동북아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선도문화를 한국선도 및 한국도교 연구자들이 상호 조화롭게 연구하여 유라시아 전역 상고문화사가 선도적 역사의식의 관점에서 서술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오랜 동안의 문화사대주의 특히 중화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길이 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선도, 선도문화, 신선문화, 신선사상, 한국도교, 중국도교, 도교, 신선공완사상, 신선장생사상

Ⅰ. 머리말

2000년대 초반 학계에 ‘한국선도’라는 학술 개념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연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연구 흐름이 생겨났다.[1] 한국선도는 한민족 고유의 사상체계, 곧 기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 및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사상(철학)과 역사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이른바 오롯이 ‘선도문화(제천문화)’[2]에 기반을 둔 연구 분야이다. 그동안 선도(仙道)라고 하면 국내외 학계에서 대부분 중국의 도교 연구, 곧 중국식 신선사상이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오해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선도는 늘 중국도교의 하위 갈래나 중국도교와는 ‘좀 구별되는 무엇’으로 인식되거나 연구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런 경향에 대한 반성으로, 한국 고유의 사유체계인 ‘선도사상(철학)’, 민족적 역사인식에 기반한 ‘선도적 역사인식(선도사관)’ 등 한국 고유의 문화전통인 선도문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이 일어났고, 이것이 또 분명히 ‘한국선도’라는 명칭을 달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고유의 사상전통을 바라보는 시각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으며, 기존 연구경향에 대한 관점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상고 · 고대 시기 동북아 제천문화의 원류로서 한국선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런 제천문화에서 파생된 신선사상 · 신선문화가 전반적으로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중원으로 밀려들어간 선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중국의 도교라고 바라보게 되었다. 또 이러한 연구 시각은 1970년대말 · 80년대초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전개된 동북아 고고학의

---

1) 한국선도는 연구역사가 짧은 신생 분야이다. 현재는 중국의 도교사상과 차별화하기 위해 ‘한국선도’라고 칭하여 ‘중국도교’와 구별하고 있다. 앞으로 각각의 연구가 궤도에 올라 안정되면 ‘선도’, ‘도교’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2) 선도문화는 기본으로 제천수행을 중시하여 ‘제천문화’, ‘수행문화’라고도 하며, 근대 초 최남선의 불함문화론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음’의 관점으로 접근되어 ‘밝문화(밝달문화, 배달문화, 광명문화)’라고도 일컫는다. 수행을 통하여 내면의 밝음이 온전히 깨어난 사람을 ‘천손’이라 하기에 ‘천손문화’의 개념도 성립된다. (정경희, 「동아시아 ‘천손강림사상’의 원형 연구 -배달고국의 ‘북두(삼신하느님)신앙과 천둥번개신 환웅-」, 『백산학보』 91, 2011, 5~6쪽.

발굴 및 연구 성과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동북아, 곧 요녕 길림 흑룡강성 유역의 신석기~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형성한 주족이 맥족(곧 한민족)이었음이 드러났기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한민족 고유의 사상 체계인 '선도' 연구와 중국에서 전래・수용된 '도교' 연구가 구별되지 않고 한국도교라는 이름으로 혼합 연구되어 왔다. 그리하여 '한국도교 선도'[3]라는, 한국도교 속의 선도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한국선도'라는 용어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면서 일차적으로는 중국도교와 구별하고, 이차적으로는 그동안 한국도교 속에 관습적으로 포함시켜 연구되어 온 선도 분야를, 이제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서 '한국선도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이름으로 분리・독립하여 그 정체성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한국선도는 중국도교식의 불로장생이나 신선사상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한국 고유의 사상이고 문화라는 관점이 제기되면서, '한국선도'와 '중국도교'가 갖는 차이점에 대한 인식도 자라나게 되었다. 이에 한국으로 전래・수용된 중국의 도교와 한국선도를 함께 연구하는 이른바 '한국도교'라고 하는 개념어도 등장하였다.

그런데 중원에서 도교가 형성될 때 선도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도교에는 선도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삼국시대에 외래삼교의 하나로 도교[4]가 한국에 유입된 이후 오랜 세월동안 선도와 습합되어 왔기에 한국의 도교에는 선도와 중국도교의 특징이 혼재된 측면이 있다. 그동안의 한국도교가 중국도교에다 한국선도를 포함하여 연구해 왔고, 그리하여 중국도교와 구별되는 한국선도만의 고유성・특수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측면이 있어 왔다.

---

3) 김윤경은 '고유의 한국 도교', '한국도교 '선도'의 특수성과 보편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김윤경, 『한국도교사』, 문사철, 2022, 15,20쪽)

4) 본고는 도교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기에 한국선도에 대비되는 관점에서 '도교'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아 도교와 도가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아니한다. '도교'의 개념 정의나 도가와 도교를 사상사적인 면에서 하나는 철학, 하나는 종교로 간주하여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나, 도가와 도교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 등등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 논외로 한다. 자세한 논의는 윤찬원, 「'도교' 개념의 정의에 관한 논구」, 『도교문화연구』 5, 1991 ; 「도가-도교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 『도교문화연구』16, 2002 참조.

그래서 한국선도・한국도교의 경계를 선명하게 구별하기엔 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의 학술연구에서는 굳이 구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거나 이를 구별하고자 하는 인식이 약했던 것 같다.[5]

2000년대 초 ‘한국선도’라는 분야가 학문의 한 분야로 등장하면서, 한국선도와 한국도교 개념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를 정리하는 연구논문도 나왔다.[6] 이제 그동안 넘나들었던 영역의 경계를 정리하여 구분할 필요가 생겨났다.

한국선도의 연구 대상이나 주제들, 이를테면 선도 경전『천부경』이나 선도 사서들, 선도제천문화, 선도수련법, 선도역사 등을 연구하여 이를 한국도교 범주에 포함시키려다 보니, 소위 ‘한국도교 선도’[7]라고 하는 어불성설, 모순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도교가 굳이 한국선도 영역을 포괄하여 연구하고자 하면, 그동안 한국선도 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선도 연구성과는 외면하면서 한국선도 영역의 자료는 끌어안으려는 속내가 무엇일까 궁금증이 올라온다.

지난 세월동안 한국학계, 특히 인문학계가 오랜 문화사대주의적 인식, 특히 중화중심주의적 역사인식이나 문화관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

---

5) 신채호는「동국고대선교고」(1910)라는 짧은 논문에서, 한국의 선교(선도)가 중원의 도교와 어떻게 다른가를, 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채호 이후 선교(선도)가 독자성을 지닌 학문의 한 분야로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능화의『조선도교사』이후 한국선도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도교의 한 갈래에 포함되어 연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6) 임채우는 ‘한국도교는 중국도교의 관련 속에서 한국에서 발달한 도교전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국선도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발전해온 고유의 선도전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립해서 쓸 것을 제안하였다. (임채우,「한국선도와 한국도교 : 두 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도교문화연구』29, 2008, 269쪽)

7) 다시 한 번 더 김윤경의 ‘고유의 한국 도교’, ‘한국도교 ‘선도’(김윤경,『한국도교사』, 문사철, 2022, 15,20쪽)라는 모순된 표현을 짚어보자. ‘도교’는 삼국시대 외래삼교의 하나로 전래・수용된 것이므로 ‘고유의 도교’라는 조합이 모순된다. 상고시기 동북아에서 시작된 선도가 중원으로 전파되어 도교가 형성되었고 그 도교가 다시 삼국으로 전래・수용되었고, 이후 형성된 것이 한국도교이므로 ‘선도 한국도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곧 ‘고유의 한국 선도’, ‘선도 한국도교’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그는 한국도교의 하위분야로 선도를 설정하고 한국선도의 고유한 사상을 도교적 시각으로 바라보아 이런 모순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제 이런 인식이나 연구 풍토에서 벗어나서 한국 고유의 역사인식과 문화관을 정립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방향의 전환은 한국문화의 내용성을 주체적 시각으로 탐색함으로써 뒤틀어진 인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바램이기도 하고 또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는 현대의 한국사회가 찾아가고 있는 한국적 정체성의 문제,[8] 곧 한류의 문화적 원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본고는 먼저 Ⅱ장에서 2000년대 '한국선도' 분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 Ⅲ장에서는 한국선도와 중국도교, 그리고 한국도교의 기본 내용 비교를 통해 연구영역을 구분해 보겠다. Ⅳ장에서는 한국도교가 한국선도의 자료는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그동안 한국선도 분야에 대한 상당량의 연구 축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성과에 대해 외면하는 한국 도교학계의 풍토에 대해 살펴보겠다. Ⅴ장에서 앞으로 한국선도・한국도교 두 분야가 조화롭게 심화・발전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2000년대 '한국선도' 연구의 등장 배경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뜻하는 상투적 표현으로 '반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 '반만년'에는 오래되고 찬란한 역사・문화라는 의미가

8) 고조선 와해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에서 외래삼교(유・불・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기존 관점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고조선에서 거슬러 올라가 신시배달국-환국을 관통하는 고유한 선도문화가 있었으니, 곧 제천문화(밝>밝달>배달문화, 광명문화, 수행문화, 천손문화 등)이다. 이름하여 '선도'이다. 현묘지도가 『선사(仙史)』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최치원의 말로 인하여 선교, 선도 등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신앙종교와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기에 '선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상고시기 고유의 선도문화가 삼국시대 이래 외래삼교의 영향으로 점차 습합 약화되어 국학의 자리를 내어주고 민속화・무속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침잠의 시기를 보냈다. 최근 문화 분야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에 선도문화는 과거의 문화가 아니라 현대에 맞게 새롭게 되살려내야 할 문화라고 보며, 이 때 한국문화의 정체성도 확립된다고 본다.

스며들어 있었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상 교과서를 통해 공부한 역사는 오래되지도 찬란하지도 않아 보였다. 한국 역사는 '삼국의 정립'으로 시작되고 있었고, 그 이전 시기는 원시사회, 부족국가시대로 뭉뚱거려져 몇 쪽의 짧은 분량으로 서술되는데 그쳤다. 반만년 역사가 재미있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았다. 외래문화 도입, 곧 관명 지명을 한자식으로 바꾸는 것이나 중국의 정치제도나 사상체계를 도입 모방하는 등 중국화되는 것을 매우 문명화되는 것으로 배웠다. '삼국시대 중국을 통해 유교・불교・도교가 도입'되었다면 그 이전 시기에 동북아 만주・한반도 지역에는 아무런 사상이나 사유체계가 없었다는 것인가. 철들어서 바라보니 그것이 바로 문화사대주의, 특히 중원을 향해 있는 경우는 중화주의적 사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찍이 신채호는 「동국고대선교고」(1910)에서 한국의 선교(곧 선도)가 중국의 도교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밝혔다. 선교는 삼국 이전, 불교나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인 단군 때부터 있었고, 단군의 선교는 노자의 도교보다 천수백년 전부터 있었고, 선교는 수행을 위주로 하고 정치적 권력이 있는 실권자・지도자이며 따라서 선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교는 동국 고대에 성행한 것으로 불로장생・장생불사를 추구하는 중국의 도교와는 전혀 그 역사와 성격을 달리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9] 부언하면 중국도교는 불로장생하여 신선이 되고자 하는 개인 차원의 '신선장생사상'이 중심이라면 한국선도는 사회적 실천으로 성통・공완하여 홍익인간・재세이화하는 '신선공완사상'이 중심이다. 이런 차이점을 잘 지적하여 드러낸 신채호는 이로써 근대 이후 한국선도 연구의 효시가 되었다.

신채호에 이어 이능화도 초기 저서인 『조선기독교급외교사』(1928) 첫머리에서,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지금까지 종교가 다섯 가지 있는데, 첫째 신교(풍류교・무축)이고 둘째가 불교, 셋째가 도교, 넷째가 유교, 다섯째가 기독교라고 하였다. 신교를 제일 앞에 놓고는 조선 신교(곧 선도)의 기원은 단군이라 하였으며, 환인・환웅・단군이 동일한 궤도임을 지적하여 당연히 신교(곧 선

9) 신채호, 「동국고대선교고」, 『대한매일신보』, 1910.3.11. 한국의 선교(선도)가 중국의 도교와 다르다고 밝힌 여섯 가지 근거를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도)와 도교를 구별하였다.[10]

또 이능화는 조선도교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하였다는 『조선도교사』[11]를 남겼다. 『조선도교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신선설에서부터 삼국시대 도교 유입, 고려 조선시대에 걸친 발전 과정, 근대에 일어난 신종교와 도교와의 관계 등 매우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엮은 저서이다. 『조선도교사』라고 칭했으나 저자 자신의 도교에 대한 뚜렷한 사관에 입각한 저술이라기보다는 주로

	중국의 도교	한국의 선교 (곧 선도)	결론
1	도교 경전이 고구려 영류왕 때 처음 들어왔다.	삼국 이전 삼국초기에 천선・국선・대선의 명칭이 나온다.	선교는 삼국 이전부터 있었다. 곧 단군 때부터 있었다.
2	도교는 불교가 들어온 뒤에 있었다.	선교는 불교 이전부터 있었다.	선교는 불교, 도교 전래 이전부터 있었던 고유사상이다.
3	도교는 노자에 비롯하였는데 노자는 단군보다 천수백 년 이후 사람이다.	선교는 단군을 천선 또는 선인이라 불렀는데 단군은 천수백 년 이전 사람이다.	선교(단군)는 도교(노자)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선대 인물이 후대 종교를 수입할 수 없다.
4	도교는 불사약을 구하거나 곡식을 먹지 않고 도인법을 배웠다.	선교는 그러지 않는다.	선교는 수행으로 성통(깨달음)을 추구하지만, 도교는 불로장생하여 신선되기를 추구한다.
5	도교의 천사진인은 제사만 지낼 뿐 정치적 실권이 없다.	선교의 조의・대선 등의 정치적 권력은 왕자와 비슷하다. (막강한 권력을 지녔다)	선교는 정치적 지도자, 도교는 제사장 종교
6	도교는 세상을 피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임금은 하늘에 오를 것을 바라고 사민은 산속에 들어가 금단을 만든다.	선교의 大仙・仙人・國仙은 외적을 물리치고 영토를 개척하는 등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다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교는 애국헌신(사회 공완), 도교는 피세, 금단, 成仙術을 한다.

10) "我朝鮮古今 宗教凡有五 一曰神教(附風流教及巫祝) 二曰佛教 三曰道教 四曰儒教 五曰基督教 今以次第 叙其原流 則古朝鮮之初 有神人王儉 降于太白山神檀樹下 號稱壇君 承統神市 化理世間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三百六十餘事 是爲朝鮮神教之始 蓋我古語 謂神曰「儉」(곰)而祖・子・孫(天主桓因・天王桓雄・神人王儉) 同一軌則也" (이능화, 「緖言」, 『朝鮮基督教及外交史』, 학문각, (1928)1968, 1쪽) 본서는 이능화가 한국 그리스도교의 전래・보급과 개항 전후의 대외관계 등을 서술하여 간행한 역사서로 천주교 통사이다. 1925년 저술되어 1928년 간행됨. (이능화, 『이능화 조선기독교와 외교사』, 서울:삼필문화사, 2010)

11) 이능화 집술, 이종은 역주, 「해설」,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1977, 5쪽. 『조선도교사』는 생전에 출간되지 못하였다가 사후인 1959년 동국대에서 영인 출판되었다. 저술시기에 대해서는 1920년대설, 30년대설이 있기는 한데 더 고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고유사상을 신교라고 하다가 왜 조선도교 속에 포함시키게 되었는지 이능화의 내밀한 속마음이 궁금해진다.

각종 문헌에서 도교 또는 도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망라한 자료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12] 한국도교 학계로부터 이 책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통사적으로 기술한 한국도교연구사상 기념비적인 노작'이며 '지금까지의 한국도교사 인식체계나 자료범위는 조선도교사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13]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능화는 『조선기독교급외교사』에서 보여주었던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서 첫째가 신교, 셋째가 도교'라는 기존의 생각을 뒤집고 『조선도교사』에 이르러서는 '조선도교' 속에 신교(선도)를 포함시키는 한계를 보였다.[14] 그 여파로 이능화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현대의 후학들에 의해 이능화는 한국도교 자생설을 주장한 인물이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근대 이후 한국도교 연구사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한국도교에서는 한국선도 자료를 모두 한국도교 자료로 집성하면서, 선교(선도)와 도교를 명확히 구별한 신채호의 견해는 언급하지 않은데 비해 이능화를 한국도교 연구의 개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채호의 전통을 이어받아 박성수(2006)도 중국의 도교는 우리나라 선도문화에 힘입어 형성된 신앙체계라고 하면서, 유・불・도 외래삼교밖에 몰랐던 당시에 선도문화를 발굴한 단재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15]고 하였다.

---

12) 이능화 집술, 이종은 역주, 「해설」,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1977, 5쪽.

13) 정재서, 「해방후 50년의 한국도교 연구사」, 『종교연구』14, 1997, 63쪽.

14) 『조선도교사』1~5장은 (1)총설 (2)조선 단군신화와 도가설 (3)신시씨가 내려온 태백산은 곧 삼신산이다 (4)삼신산은 해동에 있다 (5)진의 방사가 동국에 온 자취로 구성되어 있다. 단군, 신시씨, 삼신산 등은 중국의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상고시기 '한국선도'의 주요 내용들이다. 상고시기 선도 내용들을 『조선도교사』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생적인 한국도교라고 견강부회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의 선도적 내용들은 선도의 변형태로 보아야 하는데 이것들을 도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료 집대성 면에서는 평가받을 수 있겠으나 한국선도의 관점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점이 있다. 그런데 이능화의 많은 저서 중에서 『조선신교원류고』라는 제목의 논고가 있었는데 한국전쟁 중에 산일되어버렸다고 한다.(이종성, 「이능화 『조선도교사』의 학술사적 의의와 한계」, 『인문학연구』8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196쪽) 제목으로 보아 '신교' 곧 선도의 원류를 고찰한 내용이라고 짐작하면서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15) 박성수, 「총설」, 『한국선도의 역사와 문화』, 국제평화대학원출판부, 2006, 20~34쪽.

또 그는 우리나라 고유의 선도문화(일명 신선도)가 있었는데 이 선도문화를 모태로 하여 중원의 도교가 성립되었으며, 이후 도교로 발전하면서 황제와 노자를 신격화하여 황로(黃老)를 믿는 종교로 변질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도교는 오로지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고, 삼국시대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중국도교를 역수입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16]

신채호 계통의 연구자들은 한국선도(선교, 신교)를 중국의 도교와 구별하여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교가 본시 한국의 선도(선교, 신교, 신선도, 풍류도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17] 신채호 이래 중국도교와 구별되는 한국선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선도의 고유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18] 이런 경향의 연구들은 도교 중심의 연구 물결 속에서 한국선도를 분리・독립해내지는 못했지만, 곧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본다.

주지하듯이 선도는 상고시기 이래 고유의 수련법 및 철학(사상), 역사를 포괄하는 고유의 사상체계를 의미한다. 선도는 한국 상고 이래 최초의 국학으로 기능하였으나 단군조선 와해 이후 삼국시대에 중원으로부터 삼교(유・불・도)가 들어오면서, 선도는 약화되고 대신에 외래삼교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도는 순차적으로 불교와 유교에 국학으로서의 위상을 넘겨주고 오랜 침잠기를 겪게 되었다.

근대 이후 선도는 일제치하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민족종교 방식으로 등장하여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대종교계 민족주의사학자들의 선도에 대한 인식으로 광복 직후 국학으로서의 위상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

16) 박성수, 「총설」, 『한국선도의 역사와 문화』, 국제평화대학원출판부, 2006, 50～52쪽.

17) 신채호, 이능화의 뒤를 이은 연구로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차주환, 최삼룡, 도광순, 유병덕, 김상일, 안창범 등을 들 수 있다. 당당함만큼은 신채호가 으뜸으로 보인다.

18) 차주환, 『한국도교사상연구』, 서울대출판부, 1978 ; 최삼룡, 「仙人설화로 본 한국 고유의 仙家에 대한 연구」, 『도교와 한국사상』, 아세아문화사, 1987 ; 도광순, 「풍류도와 신선사상」, 『도교학연구』3, 1988 ; 유병덕, 『원불교사상의 전개』, 서울 교문사, 1990 ; 김상일 외, 『한사상의 이론과 실제』(공저), 지식산업사, 1990 ; 도광순, 「한국도교의 史的 연구」, 『도교학연구』7, 1991 ; 안창범, 『한민족의 신선도와 불교』, 국학자료원, 1993 ; 차주환, 「한국신선사상의 기원」, 『민족문화』26, 2003 ; 박성수・김상일 외, 『한류와 한사상: 한류의 세계화를 위한 한사상의 이론과 실제』, 모시는사람들, 2009 등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지는 못하였다. 곧이어 물밀 듯이 밀어닥친 서구화 경향으로 서양종교 중심의 종교적 지형이 만들어졌고 민족종교 단체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위축되었다. 민족종교 방식의 선도는 기복적 민간신앙이나 샤머니즘 등의 애매한 이름으로 격하되고 유일신을 신앙하는 종교에 의해서 우상숭배로 이단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급기야 지나친 서구화 열풍에 대한 반성과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70년대말・1980년대초 이래 선도수련법 중심으로 여러 선도수련단체가 등장하였고, 이에 전통적인 수련법을 현대화・대중화하고 선도적 역사인식을 회복하는 등 한국선도의 본령을 점차 회복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일어났다.[19]

수련법 중심의 선도가 대중들에 의해 부활되면서 고유의 사상전통에 대한 논의로 국학 또는 한국학의 구분 등 ‘국학’에 관한 담론이 전개되었다. 국학 및 한국학의 일차적 차이점은 한국인들이 주체적인 관점에서 한국을 인식하는 것인데, 그리하려면 인식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필요하고 따라서 주목하게 된 것이 선도였다. 곧 한국 ‘국학’ 연구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으로서 ‘한국선도’에 착목하게 된 것이다.[20] 그동안 비록 불교와 유교가 국학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는 하나, 한국사회의 토양이 선도였기 때문에 선도적 기반에 의해 변용된 한국적 불교, 한국적 유교였다. 비슷한 경우로 도교는 국학의 지위를 얻은 적은 없었지만 선도와 습합하여 한국인의 삶에 영향력을 미쳤기에 한국적 도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하므로 한국 국학의 원류이자 중심점을 선도라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21]

한편 1970년대말・1980년대초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고학 발굴 및

19) 석상순, 「근대 이후 한국선도 전통의 회복 과정과 ‘선교’ 등장」, 『선도문화』31, 2021, 91~96쪽.

20) 정경희, 「‘한국선도’와 근대 이후의 ‘국학’ 담론」, 『동학학보』11권2호(통권14호), 2007 참조.

21) 한국 국학의 원류이자 중심점이 선도이고 이를 바탕으로 외래삼교가 수용되었다는 관점에서, 한국선도를 기준으로 외래사상・외래문화를 총체적으로 끌어안은 것이 한국문화 전체상이 된다. 이에 한국선도를 협의의 국학으로, 한국선도를 기준으로 외래사상・외래문화를 총체적으로 끌어안은 전체상을 광의의 국학으로 나눌 수도 있다. 자세한 논의는 정경희, 「‘한국선도’와 근대 이후의 ‘국학’ 담론」, 『동학학보』11권2호(통권14호), 2007 참조.

그 연구 성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때마침 제시해 주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불어닥친 소위 선도사서의 진위 논쟁[22]은 선도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재야사학계 포함)의 기상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선도수련법 중심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한 국학 열풍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 이후 위서 주장에 대한 재검토 작업으로 진서 내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23]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뇌리에 각인된 위서라는 단어의 힘은 매우 위력적이

22) 위서 주장은 송찬식의 「僞書辨」(월간중앙, 1977.9월호)에서 시작하여 조인성, 박광용 등이 대표적인 논자이고(조인성, 「『규원사화』와 『환단고기』 사료 비판」, 『한국사시민강좌』 제2집, 1988 ; 조인성, 「한말단군관계사서의 재검토-『신단실기』단기고사환단고기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 1989 ; 박광용, 「대종교 관련 문헌에 위작 많다 - 『규원사화』와 『환단고기』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역사비평』10, 1990년 가을호 ; 박광용, 「대종교 관련 문헌에 위작 많다(2) - 『신단실기』와 『단기고사』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역사비평』16, 1992년 봄호 ; 조인성, 「『환단고기』의 『단군세기』와 『단기고사』 『규원사화』」, 『단군학연구』2, 2000 ; 조인성, 「재야 사서 위서론-『단기고사』·『환단고기』·『규원사화』를 중심으로」,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2 ; 박광용,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서해문집, 2002 ; 조인성, 「『규원사화』·『단기고사』·『환단고기』위서론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논총』55, 2017 등) 이외에 이도학, 이순근, 이문영 등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서', '위작', '위서론'이라는 위력적인 단어 때문에 해당책의 내용까지 '위(僞)'로 내몰리는 비운을 당하였고 그 여파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책을 통째로 위서로 볼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살펴 취사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 한영우, 「행촌 이암과 『단군세기』」, 『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 일지사, 2002 ; 세계역사문화연구소 편, 『한국사의 단군인식과 단군운동』, 국제평화대학원출판부, 단기 4339(2006) ; 국학연구원, 『한국선도 문헌의 위서론에 대한 재검토』, 국학연구원 제9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 박미라, 「『단기고사』의 판본과 문제」, 『선도문화』6, 2009 ; 박병섭, 「『삼성기 전』상·하편에 숨겨진 사실들」, 『선도문화』6, 2009 ; 김성환, 「선가 자료 『청학집』의 자료적 검토」, 『선도문화』6, 2009 ; 임채우, 「선도사서 『규원사화』해제 -위작설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선도문화』6, 2009 ; 민영현, 「『참전경』 해제와 그 문화사상적 의의」, 『선도문화』6, 2009 ; 이승호, 「한국선도문헌의 연구사 소고- 전승과정과 위작논쟁을 중심으로」, 『선도문화』6, 2009 ; 우대석, 「『환단고기』 위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선도문화』9, 2010 ; 민영현, 「『환단고기』의 철학적 가치와 그 이해」, 『선도문화』9, 2010 등 다수 ; 유철, 「『환단고기』위서론의 발생과 최근 동향」, 『세계환단학회지』5권1호, 2018 ; 이명우,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님을 입증하는 사료의 고찰」, 『세계환단학회지』6권2호, 2019 ; 이기동·정창건 역해, 『환단고기』, 행촌, 2019 등 다수.

어서 그 여파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위서(僞書)란 책의 성립연대, 저술자, 성립과정과 같은 서지사항이 거짓되고 조작되었다는 말이지, 절대로 책 안의 수록된 내용이 모두 잘못(거짓, 조작)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필자는 설사 부분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을 통째로 위서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서지사항이 진서라도 부분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유학을 대표하는 유학자 이기동(2019)이 철학사상적 측면에서 ‘『환단고기』 진서 주장’을 하고 『환단고기』 역해를 펴낸 사실은 상당히 의미있게 다가온다. 그는 『환단고기』가 한민족의 고유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어서 진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평생 철학을 연구해온 학식을 가지고 밝히고 있다.[24] 선도사서가 사료 비판의 측면에서 고증되어야 할 문제도 안고 있겠지만 중원 계통의 사상과 구별되는 한국선도 고유의 독자적 논리가 실려 있다면 사료비판과는 별개로 내용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선도사서에 대한 진위시비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때가 되면 유적・유물이 알아서 걸어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고고학적 발굴 및 연구 성과는 기존 강단주류학계의 위서론자들이 그토록 인정하기 싫어했던 영광스런 고조선(단군조선) 및 그 이전 상고시기의 역사적 실체를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기록이 유물・유적으로 확인되면 더욱 신뢰성을 얻게 마련이다. 이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유물・유적 들이 선도사서가 알려주고 말해주는 내용과 마치 부절 들어맞듯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25]

---

24) 이기동 명예교수는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을 역임한 유학자이자 동양철학자이다. 그는 그동안 『환단고기』가 강단사학자들에 의해서 위서로 판정되었다는 그들의 판단만 믿고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가 실제로 『환단고기』를 읽고서는, 『환단고기』에 담긴 우리 고유의 철학과 사상을 접하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된 까닭은 감정하는 과정에 철학자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결코 위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기동・정창건 역해, 『환단고기』, 행촌, 2019, 4~10쪽)

25) 한국의 선도사서는 후기 구석기 이래의 역사를 신화가 아닌 역사로, 그것도 연대기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전세계의 유일한 기록물이다. 정경희는 1990년대~2010년대에 걸쳐 발굴된 소남산문화의 유적・유물(특히 옥기 및 적석단총) 연구 결과와 선도사서 『징심록』「부도지」・『태백일사』・『규원사화』에 나타나 있는 연대기 기록을 비교 검토한 결

1970년대말・1980년대초 요서 청구지역 발굴 및 연구를 거쳐 1990년대 요동 백두산 서편 천평지역의 고제단 발굴 및 연구로 나타난 성과는 배달국사 및 배달국의 선도제천문화의 실체를 유물・유적으로 제시해 주었다.[26] 요동~요서지역의 서기전 4000년~서기전 2400년경까지 지속된 후기신석기 및 동석병용기 시대의 문화가 그동안 선도사서 속에서만 존재한 한민족(맥족, 예맥족)이 주도한 배달국의 선도문화였음이 밝혀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민족의 종족적 문화적 정체성 문제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졌다.[27] 바야흐로 동북아 만주지역의 고고학 연구성과는 한국 상고・고대 시기인 배달국의 역사를 입증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년 흑룡강성 오소리 강변에 위치한 야트막한 소남산 정상부에서 발굴된 옥기묘에서 다량의 옥기가 출토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2010년대에 소남산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소남산유적 중 2기는 서기전 7200년~서기전 6600년경 신석기시대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적석단총으로, 구석기후기 바이칼지구 말타문화의 석단총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소남산유적에서 발굴된 환호가 둘러진 적석묘・적석총은 '환호를 두른 구릉성 적석단총'의 시원으로 선도제천문화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고, '옥・석기 부장품'은 제천의기로서 선도수행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28]

과, 선도사서의 시대구분 기록과 고고학적 문화유적의 발굴 결과가 서로 맞아떨어짐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선도사서 기록이 허구가 아닌 역사임을 고고학으로 입증하게 되었다. 더 자세한 논의는 정경희, 「흑수백산지구 소남산문화 '옥벽류(벽・환・결)'의 요서지구 흥륭와문화 '결'로의 전파: 유라시아 신석기 선도제천문화의 계승과 확산 사례」, 『유라시아문화』5, 2021, 180~186쪽 참조.

26) 정경희, 「통화 만발발자 제천유적을 통해 본 백두산 서편 맥족의 제천문화(Ⅰ)- B.C. 4000년~B.C.3500년경 '3층원단(모자합장묘)・방대'를 중심으로-」, 『선도문화』26, 2019 ; 「통화 만발발자 제천유적을 통해 본 백두산 서편 맥족의 제천문화(Ⅱ)- 제2차 제천시설 '선돌 2주・적석 방단・제천사'를 중심으로-」, 『선도문화』27, 2019 ; 「통화 만발발자 제천유적 추보 연구: 『통화만발발자유지고고발굴보고』를 중심으로」, 『동북아고대역사』3, 2020 등 참조.

27) 정경희, 「요동~요서 적석단총에 나타난 맥족(예맥족)의 이동 흐름」, 『동북아고대역사』2, 2020 ; 「배달국 초 백두산 천평문화의 개시와 한민족(예맥족・새밝족・맥족)의 형성, 『선도문화』28, 2020 참조.

28) 정경희, 「흑수백산지구 소남산문화 '옥벽류(벽환결)'의 요서지구 흥륭와문화 '결'로의 전파: 유라시아 신석기 선도제천문화의 전통과 확산 사례」, 『유라시아문화』5, 2021, 180~

서기전 7000년경 ‘적석단총-옥・석기’를 표지로 하는 소남산문화는 후기 구석기-신석기 이래의 역사를, 신화가 아닌 역사로 바라보게 한다. 곧 한국의 선도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구분과 꼭 맞아떨어져 서기전 4000년경 이래의 배달국사 이전의 환국시대 역사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솔직히 말하면 장황하기만 한 『도장(道藏)』 수천여 권보다 원리와 법칙의 정수를 간결・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천부경』, 비록 짧고 분량도 적지만 중요 핵심이 기록된 선도사서가 더 주옥같지 않은가. 서기전 7000년경 이래의 오소리강 소남산문화, 서기전 4000년경 이래의 요동 백두산 서편 천평지역과 요서 대릉하 청구지역의 양대 선도제천문화는 선도문화를 기준으로 서술된 선도사서의 환국-배달국사의 내용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니, 이는 다 고고문화 연구의 덕분이다.

이렇듯, 1970년대말・1980년대초 선도수련법 중심으로 되살아난 사회적 분위기와 1970년대말・1980년대초 이후 동북아 지역의 고고학 발굴 및 연구 성과에 힘입어 2000년대 이래 한국선도는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삼국시대 외래삼교(유・불・도)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한민족에게 있어 왔던 고유의 사상전통, 이를 최근 ‘선도(仙道)’라고 명명하고, 자칫하면 혼동하기 쉬운 중국도교와 구별하여 ‘한국선도’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다.

실상 선도는 그동안 풍류도(風流道), 풍월도(風月道), 선도(仙道), 신선도(神仙道), 종교(倧教), 신교(神教), 고신교(古神教), 선교(仙教), 선가(仙家)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왔다. 선도(仙道), 신선도(神仙道), 종교(倧教), 선교(仙教) 등의 용어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단순한 신앙이나 종교 전통이 아니라 ‘신선[仙・倧・侃]’으로 표상화되는 바, 전인적 인격체가 되는 심신수련법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 체계라는 점에 주목하여 ‘선도(仙道)’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선도는 중국의 도교 전통(세분화하면 도가철학・도교신앙・내단수련법)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사상적 본질과 역사적 전개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도교와 구별하여 ‘한국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29]

186쪽 ; 「흑수백산지구 소남산문화 ‘환호를 두른 구릉성 적석단총’의 요서지구 흥륭와문화로의 전파」, 『유라시아문화』6, 2022 ; 「흑수백산지구 소남산문화의 옥・석기 조합 연구」, 『선도문화』32, 2022 참조.

신채호 이래 근대 시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도 역사학, 철학, 국어학, 국문학, 민속학 등의 여러 분야[30]에서 한국선도가 중국의 도교 전통과 구분되는 고유의 수련법이자 사상 체계라고 바라보고 연구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뒤 이어 한국선도 연구자들의 논문과 저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31] 선학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선도'라는 용어를 학술용어로 명백히 개념화하여 사용한 것은 정경희의 「한국선도의 수행법과 제천의례」(2004) 논문[32]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선도'를 주제로 하는 연구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한국선도의 학문적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근대 한국선도 연구의 개조인 신채호 이래 선도의 고유성에 대해 탐색해온 선학들의 연구에 힘입어, 2000년대 '한국선도' 연구는 1970년대말・1980년대초 선도수련법 중심의 수련단체들이 등장하여 고유한

29) 정경희, 「한국선도의 수행법과 제천의례」, 『도교문화연구』21, 2004 ; 「'한국선도'와 근대 이후의 '국학' 담론」, 『동학학보』11권2호(통권14호), 2007 참조.

30) 김교헌, 박은식, 신채호, 류근, 정인보, 이상룡 등의 민족사학의 맥이 있고, 주시경, 지석영, 김두봉, 이극로, 최현배 등으로 대표되는 국어학・국문학의 맥이 있다. (김교헌의 『신단민사』, 『신단실기』, 『단조사고』(공저), 정인보의 『한국통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이능화의 『조선여속고』, 『조선무속고』, 지석영의 『신정국문』, 주시경의 『국어문법』, 『말의 소리』등)

31) 신채호, 「동국고대선교고」, 『단재신채호전집』별집, 1910(1972) ; 이능화, 이종은 역,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1977 ; 차주환, 『한국도교사상연구』, 서울대출판부, 1978 ; 최삼룡, 「仙人설화로 본 한국고유의 仙家에 대한 연구」, 『도교와 한국사상』, 범우사, 1987 ; 송항룡, 「한국고대의 도교사상」, 『도교와 한국사상』, 범우사, 1987 ; 이을호, 「'한'사상의 구조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한사상의 이론과 실제』, 지식산업사, 1990 ; 도광순, 「한국사상과 신선사상」, 『도교학연구』7, 1991 ; 도광순, 「한국도교의 사적 연구」, 『도교학연구』7, 1991 ;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2 ; 민영현, 『한국 仙사상의 존재양상과 그 전개에 관한 연구』, 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93 ; 『仙과 한』, 세종출판사, 1995 ; 「중국의 도가와 도교 그리고 한국 仙의 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선도문화』1, 2006 ; 윤내현, 『한국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 선도문화연구원 편, 『한국선도의 역사와 문화』, 국제뇌교육대학원출판부, 2006 ; 박선희, 『우리 금관의 역사를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 신용하, 『고조선문명의 사회사』, 지식산업사, 2018 ; 임재해, 『고조선문명과 신시문화』, 지식산업사, 2018 ; 우실하, 『고조선문명의 기원과 요하문명』, 지식산업사, 2018 ; 박선희, 『고조선문명의 복식사』, 지식산업사, 2018 ; 이기동・정창건 역해, 『환단고기』, 행촌, 2019 ; 정경희, 『백두산문명과 한민족의 형성』, 만권당, 2021 등 다수.

32) 정경희, 「한국선도의 수행법과 제천의례」, 『도교문화연구』21, 2004.

문화와 역사 인식으로 선도의 본령을 회복하기 시작한 점, 1970년대말・1980년대초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고학 발굴 및 그 연구 성과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해 준 점 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무엇보다 문화사대주의 특히 중화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문화를 주체적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의 대전환에서 '한국선도'라는 연구 분야가 등장하였다고 본다.

Ⅲ. 한국선도・중국도교・한국도교의 내용 및 영역 비교

한국의 고유한 사상 전통을 '선도(仙道)'라고 할 때, 선도는 철학(사상), 역사(선도사, 선도사학), 수행(수련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철학으로는 '일・삼・구론(삼원오행론, 삼원조화론)', 역사는 선도적인 인식을 담은 '선도사학(홍익사학, 복본사학)', 수행법으로는 삼수행법 및 최고의 수행의례행위인 '제천'이 있다. 선도의 가장 기본은 수행이다. 수행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천인합일・신인합일을 이루어 성통(개인적 깨달음)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완(깨달음의 사회적 실천, 곧 홍익인간 재세이화)하여 한 생명체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후 조천하는데 있다. 성통・공완하여 조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세계의 삶 속에서는 천인・신인・선인 곧 신선[仙][33]이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선도 수행 및 사상(철학)의 정수를 담은 것이 경전이다.

그동안 동북아 상고문화는 주로 '샤머니즘[巫]'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선도에서는 샤머니즘의 원형을 '선도문화[仙, 선도제천문화]'로 인식한다.[34] 동

33) 한국선도 고유사상의 하나를 신선사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김낙필은 한국사상의 고유성을 찾으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중국도교 자체에도 신선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인 도교학계의 실정과 맞지 않으므로 새로운 용어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선교, 고신도, 한사상, 밝사상, 한밝사상 등이 무난할 것 같다고 하였다.(김낙필, 「한국도교 연구의 발전적 방향」, 『도교문화연구』15, 2001, 427쪽) 이에 필자는 한국선도의 경우는 성통・공완하여 조천하는 것을 신선이 된다고 보기에 '신선공완사상'으로, 도교의 경우는 불로장생 우화등선하여 신선이 되므로 '신선장생사상'으로 구별하기로 한다.

34) 현재 한국학계에서 한국문화의 요체를 샤머니즘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샤머니즘의

북아 상고시기의 선도문화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자산이 되었지만 그 본류는 한반도로 계승되었다. 한반도로 계승된 선도문화는 이제 '한국선도'라는 새로운 학술 개념어와 학문 분야가 등장함으로서 오랜 침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그동안 기왕에 동아시아 신선문화의 주체로 인식되어오던 중국의 도교나 신선문화는 한국선도에 대비되는 차원의 '중국도교'로 새롭게 개념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임채우(2008)는 한국선도의 개념화 작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도교는 중국도교와의 관련 속에서 한국에서 발달한 도교전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국선도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발전해온 고유의 선도전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립해서 쓸 것을 제안한다고 하여 '한국도교'를 학술용어로 개념화하였다.[35] 아울러 한국선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한국도교와는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 하는 점에 대해 학계의 토론을 거쳐 정리해 나갈 숙제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한국선도 분야의 연구 초기에 한국선도・한국도교의 개념을 구별해서 쓰자는 제안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중국의 도교를 중국도교학으로 연구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지만 한국도교가 중국에서 전래・수용된 중국의 도교를 기반으로 성립되었기에, 중국도교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본 장에서는 한국선도・중국도교・한국도교의 특징적인 내용을 경전, 철학(사상), 역사의식, 수행(수련법)・실천 4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려고 한다. 비교를 통해 관심 영역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영역도 구분되리라 본다. 먼저 각각의 핵심을 간추려 도표화해 보았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속・무속, 그리고 민족종교에 준하고 있다. 한국선도에서는 민속・무속이나 민족종교에 준해서는 상고시기의 문화를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민속・무속이나 민족종교는 상고 시기 문화의 후대적 변형태일 뿐 상고시기 문화의 원형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속・무속이나 민족종교의 원형은 상고시기 배달국-단군조선의 선도제천문화를 원형으로 본다. (정경희, 「동북아 고고학에 나타난 배달국의 선도제천문화와 민족종교의 원형 회복」, 『선도문화』31, 2021, 11쪽, 14~15쪽)

35) 임채우, 「한국선도와 한국도교 : 두 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 『도교문화연구』29, 2008, 269쪽.

	한국선도	중국도교	한국도교
경전	▶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	▶도장: 도덕경, 참동계, 황정경, 포박자 등[36]	▶중국도교의 경전 도입(노자도덕경, 장자, 주역참동계, 포박자 등) ▶선현들의 도교 관련 해석서 등 -)한국도교를 대표할 만한 경전은 없다.
철학(사상)	▶삼원오행론・삼원조화론: 천・지・인 삼원에서 '인'이 조화점・중심점 역할 ▶신선공완사상: 성통・공완・조천, 곧 홍익인간・재세이화하는 신선문화・신선사상	▶음양이원론・음양오행론: 천・지・인에서 인이 빠짐 ▶신선장생사상: 불로장생 우화등선하고자 하는 신선사상	▶도가사상(노장철학)과 도교사상(음양오행,신선장생사상) ▶한국선도의 자료를 한국도교 자생설로 끌어안음.
역사의식	▶홍익인간・재세이화의 역사인식이 강함 - 선도사관(복본사관・홍익사관) 형성 ▶사회적 실천 강조: 선도사서 및 선도서 편찬	▶역사의식 미비: 도교사서, 도교사학 없음 ▶개인의 기복 신앙: 사회적 실천이 강조되지 않음	▶도교학계는 선도사서를 '한국도교 선도'로 분류하여 한국도교 자료로 집성함 ▶선도사서에 대한 진위논쟁 있음
수행・실천	▶천인합일・신인합일 추구 ▶성통・공완・조천 ▶지감・조식・금촉	▶외단(금단법), 내단(수련법), 양생술(벽곡,도인) 도교의학 등	▶수련도교 중심(내단, 양생법) :심신수양 건강관리 생활운치 등

1. 경전

한국인들은 선도 수행을 통해 인간과 우주를 인식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갔다. 우주의 원리와 법칙 및 생명체 인간으로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원론적 지침을 담은 것이 선도의 경전이다. 한국선도는 『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을 3대 경전으로 삼고 있다. 『천부경』은 81자로 된 우리 민족 최고의 으뜸되는 경전으로, 우주만물의 생성과 창조, 진화와 완성의 원리인 일・삼론(삼원론, 삼원철학, 삼원사상)을 담고 있다. 곧 존재의 근본 원리와 우주의 기본 질서를 밝혀놓은 것이다. 『삼일신고』는 천부경의 원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드러나는지를 설명한 해석서로, 그러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수행법(지감・조식・금촉법)과 수행으로 실천하여 도달하는 수행목표(성통・공

36) 이종은은 '도교는 노자의 『도덕경』을 최상의 경전으로 하여 사상적 연원을 삼고, 노자를 교조로 섬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교의 중심경전은 『도덕경』, 『참동계』, 『황정경』, 『포박자』 등 많은 경전이 있으나 일반민중에게 통용된 것은 『태상감응편』, 『음즐문』, 『공과격』의 삼편'이라고 하였다. 이능화, 이종은 역주,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1997, 10, 13쪽.

완・조천)를 밝히고 있다. 「천훈」・「신훈」・「천궁훈」・「세계훈」・「진리훈」의 5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6자이다. 『참전계경』은 36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의 근본 원리와 부합하는 삶을 살기위해 사람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규범들을 담고 있다. 8강령 366항목, 곧 여덟 가지 이치에 따른 삼백예순여섯 지혜가 서술되어 있다.

근대 이후 선도의 본령을 가장 잘 계승한 대종교가 『천부경』・『삼일신고』를 경전으로 채택하였고, 1970년대말・1980년대초 심신수련법 중심으로 등장한 수련단체들 중에서도 현대단학이 『천부경』・『삼일신고』를 경전으로 채택하여 선도의 원형성을 회복하고 있다.[37]

중국도교는 역대의 도교서를 집대성한 도교경전으로 『도장(道藏)』을 든다. 도장은 불교의 대장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역대의 도교총서를 가리키며 『도장경』, 『도일체경』이라고도 한다. 도교 경전은 후한의 성립도교(교단도교) 곧 원시도교 교단이 형성되어 도교활동을 시작하면서 성립되었다고 한다. 주지하듯이 노자의 『도덕경』, 갈홍의 『포박자』를 비롯하여 수차례 도장 간행사업을 벌였다. 명대에 이르러 『정통도장(正統道藏)』(1445년) 칙찬, 청대에 『도장집요(道藏輯要)』(1906년 증보판, 245책 287종)가 편찬되었다. 오늘날 흔히 『도장』이라면 이 둘을 가리킨다.[38]

한국도교는 경전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에 선뜻 답을 떠올리기 어렵다. 『도덕경』, 『태평경』, 『포박자』, 『주역참동계』등 중국도교 경전인 『도장』을 수입해다 경전으로 쓰는가. 아니면 중국도교 경전에 대한 한국 선현들이 남긴 해설서 등이 한국도교 경전인가 갸웃거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한국연구재단(NRF)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으로 『한국(韓國) 도가(道家) 및 도교(道教) 자료(資料) 집성(集成) -한국(韓國) 도장(道藏) 편찬(編纂)-』 사업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39] 한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유・

37) 석상순, 「근대 이후 한국선도 전통의 회복 과정과 '선교' 등장」, 『선도문화』31, 2021, 85~96쪽.

38)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도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6.06. 검색)

39) 과제번호 KRF-2005-078-AM0019 2005년도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으로, 연구기간 3년(2005.09.01.~2008.08.31.), 연구참여자로 공동연구원 10명(김낙필,

불・도 삼교로 형성되어 있는데, 조선 유학 자료의 총서는 『조선문집총간』으로, 불교관련 자료는 고려시대부터 경전 정리가 되어 왔는데 비해, 도교는 아직 자료 정리가 미비하여 ‘한국의 도가 및 도교 자료를 집성’하여 ‘한국의 도장을 편찬’하고 한국도교의 총서 발간에 최종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 범위는 ①도가 관련 자료: 노장에 대한 주석서, ②도교 관련 자료: 도교에 관련된 문헌, ③신흥종교 자료의 일부: 원불교의 『수심정경(修心正經)』, 대종교의 『삼일신고』, 『천부경』, 『회삼경』 등도 포함, ④도가 및 도교에 대한 비판 자료: 과거 문집이나 사료에 보이는 도가 및 도교 비판자료, ⑤기타자료: 역대 재초문과 사료에 보이는 국가 및 민간의 도교활동 자료, 한국의 전기(傳奇)나 중국의 기록에 보이는 한국의 신선전이라고 밝히고 있다.[40]

한국의 도가 및 도교 문헌자료로 집성된 것들은 ①총설부의 5종 『도가귀감(道家龜鑑)』, 『심기리편(心氣理篇)』, 『도장류(道藏類)』, 『오계일지집(梧溪日誌集)』, 『이학집변(異學集辨)』, ②도가부(道家部)의 13종의 주자료 및 『독노자(讀老子)』등 35종의 단편자료, ③참동부(參洞部)의 『참동고(參洞攷)』를 비롯한 7종, ④수행부(修行部)의 『수진론(修眞論)』을 비롯한 16종, ⑤종교부(宗教部)의 『공과신격(功過新格)』을 비롯한 6종, ⑥선도부(仙道部)의 『삼일신고』를 비롯한 17종이다. 총 66종 2,559,400여 글자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이다.[41] 지금까지 알려진 문헌자료들을 거의 다 모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도교는 중국도교 자료와 한국선도 자료의 합으로 뚜렷하게 내세울 독자적인 경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한국도교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래 한국도교는 경전 편찬사업(도가부,참동부, 수행부, 종교부)을 진행하여 왔지만, 딱히 한국도교 경전, 한국도교 사서라고 제시할 만한 것이 없으니, ‘선도부’ 항목을 두어 한국선도 관련 자료를 집성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경 나부산에서 10년간 『도장』 2천여 권을

김성환, 이권, 윤찬원, 김학권, 김용휘, 이봉호, 이원태, 조한석, 정선경), 연구보조원 18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사업이었다. https://www.krm.or.kr (2022.07.20. 검색)

40) 김낙필 외, 『한국 도가 및 도교 자료 집성- 한국 도장 편찬(결과보고서)』, 2009, 15쪽. https://www.krm.or.kr (2022.07.20. 검색)

41) 김낙필 외, 『한국 도가 및 도교 자료 집성- 한국 도장 편찬(결과보고서)』, 2009, 9~44쪽. https://www.krm.or.kr (2022.07.20. 검색)

공부하고 중국인이 추앙하는 39인 성철에 속하는 전병훈이 가치를 부여했던, 단군 이래의 천서 『천부경』을 어떻게든 한국도교의 도장 속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한국도교의 경전으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42]

이 방대한 문헌자료들이 한국도교의 경전 역할을 하는 것인가. 『도장』이란 경전을 뜻하는데, 한국도교 자료는 중국도교 경전에 대한 해설적 성격을 띤 글이 많다. 선현들이 남긴 도교경전에 대한 해설서나 도교체험, 수련법 관련 자료 등을 집성하여 『도장』이라는 이름으로 호칭해도 되는지? 용어에 대한 고민과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철학(사상)

한국선도의 고유한 사상체계는 한국선도의 삼대 경전인 『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 이하, 선도사관에 입각한 여러 선도사서 『부도지』·『환단고기』·『규원사화』 등에 잘 나타나 있다.[43]

근대 이후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고유한 사상적 전통을 보통 한사상(一사상, 삼일(三一)사상, 삼원(三元)사상, 삼원조화(三元造化)사상 등으로 표현하여 왔다. 이 중 '일(一)'과 '삼(三)'에 주목하여 '삼일사상', 천·지·인 삼원(三元)이 여타 사상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보아 '삼원

42) 『1년차보고서』(2006), 『2년차보고서』(2007),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2009, 총 2,585쪽)가 보고되었다. 주목할 사항은 『1년차보고서』에서 제2부 경전부를 두었고, 연구범위로 '신흥종교 자료의 일부'로 대종교의 '『삼일신고』, 『천부경』' 등도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한국 도장 편찬의 작업에 포함시키겠다 '(10쪽)고 밝혔다. 연구의 방법에서 Ⅱ. 經典部 항목을 두고 '한국 도교의 경전이란 『천부경』과 같은 경전을 말한다'(12쪽)라고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2년차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9~11쪽) 『결과보고서』에는 'Ⅱ. 道家部'로 바뀌고, 'Ⅵ. 仙道部'를 두어 『삼일신고』, 『신사기』, 『신리대전』, 『회삼경』 등을 비롯하여 『환단고기』, 『규원사화』 및 『해동전도록』, 『해동이적』, 『청학집』 등의 자료들을 집성하고 있다. 『한국 도가 및 도교 자료 집성-한국 도장 편찬』에 '선도부'라는 별도항목을 두어, 한국도교 안에 한국선도 자료를 끌어안았다는 점에 주목된다.

43) 본고에서 『부도지』는 박제상의 『징심록』 제1장인 『부도지』를 지칭한다. 『환단고기』는 『삼성기전』(상·하편),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총칭하며, 이하 개별 서명을 사용한다.

사상'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선도학에서는 '일(一)'과 '일(一)'의 세 차원인 천・지・인 삼원의 '삼(三)'을 강조하는 특징을 선명하게 담아내기 위하여 '일・삼론', 이를 더 확장한 논리인 '일・삼・구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선도사서『부도지』에서는 일・삼・구론 속의 구원(九元)을 '기・화・수・토・천부' 오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을 오행이라고 한다면 일・삼・구론을 '삼원오행론'으로, 천・지・인 삼원 중에서 인에 초점을 맞추어 인 차원을 중심점・조화점으로 삼으므로 '삼원조화론'으로도 일컫는다.[44] 이때의 핵심은 '일(一)'이나 '삼(三)' 자체가 아니라 '일(一)' 내에서 '천・지・인 삼원'이 어울려 돌아가는 '법칙' 그 자체, 존재계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법칙' 그 자체이다. 지구상의 많은 사상・종교 전통에서 인간을 위시한 존재를 설명할 때, 본질과 현상의 이원(二元)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에 한국선도에서는 '삼원(三元)'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사상・종교 전통과는 명확하게 대비된다. 이 점이 한국선도 사상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45]

이렇게 한국선도 고유의 존재론인 삼원오행론(삼원조화론)에서 한국선도 고유의 인간론이 파생되며, 인간론에서 수행론이, 수행론에서 실천론이 파생된다. 한국선도에서는 존재계의 우주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삼진(三眞)을 온전하게 받은 존재로, 또 존재의 생성 및 회귀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 인간은 온전하게 삼진을 받았지만 구체적 삶의 현실 속에서 점차 미혹되어 삼망, 삼도의 단계를 거침으로서 저급화되어 18경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다. 그렇지만 다시 수행을 통해 삼진으로 회귀할 수 있는 존재, 근본인 '하나[一]'로 돌아가면 하느님[신]과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46] 이러한 인간론에서 수행론과 실천론이 파생되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

44) 본고에서는 '삼원오행론'을 대표적으로 사용한다. 중국도교의 음양오행론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45) 자세한 논의는 정경희, 「『천부경』・『삼일신고』를 통해 본 한국선도의 '一・三・九論'」,『범한철학』44, 2007 ; 「『부도지』에 나타난 한국선도의 '一・三論'」,『선도문화』2, 2007 참조.

46)『삼일신고』「진리훈」참조.

한국선도가 삼원오행・삼원조화론이라면 중국도교의 중심철학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불로장생・장생불사를 지향하는 신선사상이나 음양오행론을 떠올리게 된다. 연구자들은 도가사상과 도교사상을 구별하거나 도교사상에서 도가사상을 분리하여 도가사상을 순수한 철학적 탐구대상으로 삼기도 한다지만 이 둘을 선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김낙필(2005)은 '대체로 합의된 바는 종교화되기 이전의 노장철학을 도가사상으로, 신선사상 및 음양오행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어 종교화된 것을 도교사상으로 부른다'[47]고 하여, 도교 철학으로 신선사상 및 음양오행론을 언급하였다.

정재서(2006)는 '중국의 도교는 원래 민간의 무술(巫術) 신앙에서 출발하였으나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인 방술(方術)로 발전하게 되면 방사들의 활동 무대가 과거의 무당들과는 달리 상층지배계층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를 관방도교로 보았다. 관방도교는 정치와 관계를 맺으면서 방사들의 황제의 불로장생 도모에 그치지 않고 황권을 신비주의에 의해 해석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된다. 방사들에 의해, 도참・비결 등 주술적 신비주의적 수법 등을 도교 신권에 의한 황권의 옹호 수법이 되었고, 방사의 정치 참여가 일어나고 도교의 신비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유학이 음양오행설・신선사상 등 참위화의 길을 걷게 되는 등의 혼융의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이념성・종교성・방술성을 갖춘 도교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48] 곧 불로장생, 주술적 신비주의, 음양오행설・신선사상 등을 도교의 요소로 보고 있다.

최대우・이경환(2019)은 '도교철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진시대 노장철학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런 까닭에 노자라는 인물을 신격화하고 불교와의 교섭을 통해 수많은 도교의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내었다. 중국인들은 도교가 토생토장(土生土長), 곧 중국이라는 땅에서 생겨나고 성장한 종교라고 하지만, 불교의 영향 아래 성장한 종교로서 불교가 없었다면 도교는 성립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유학은 중국의 관방철학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에서의 역할은 미미하고 제한적이었다. 유학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도교이며 일반백성들의 삶에서 '믿음'에 바탕을 둔 종

47) 김낙필, 『조선시대의 내단사상』, 대원출판, 2005, 18쪽.
48)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6, 96~107쪽.

교적 신앙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래서 중국 도교의 중심되는 철학으로 신선사상을 들고 있다. 노자철학에서 직접적으로 신선을 논의한 내용은 없지만, 도교에서 노자를 교주로 삼고 태상로군(太上老君)이라는 신으로 삼았다. 장자철학에는 신선사상과 연관되는 내용이 비교적 많다. 선진시대의 노장철학은 도교의 형이상학적 뿌리라고 하였다.[49] 곧 중국도교의 중심되는 철학으로 신선사상을 들고 있다.

김윤경(2022)은 ‘도교는 중원지역에서 선진 시기 노자・장자의 사유, 황제의 정치술・황로학, 태평도 오두미교라는 교단도교 시기를 지나면서, 외단 열풍이 불었던 금단도교의 시기를 거치면서 대범하게 불교의 세계관과 유교의 가치관을 적절히 섞고 신선사상 등을 합쳐서 그 외연을 확장해 왔다. 그것은 마치 대규모의 용광로 같아서 옥황상제 노자 같은 전통적 신격 이외에 각 지방의 수호신 및 산신신앙 등을 포괄하였다[50]’고 정리하였다. 곧 중국도교는 노장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불교・유교사상 및 신선사상에다 민간신앙까지 다 녹아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도교 철학은 크게 음양오행론[51] 및 신선장생사상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음양오행론은 본질론을 삼원론이 아닌 음・양 이원론으로, 현상론을 목・금・수・화・토 중국식 오행으로 바라보고 이 둘을 결합시킨 것이다. 한국선도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 한국선도가 중원지역으로 널리 전파하여 중국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선도의 존재론인 삼원오행론을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49) 최대우・이경환, 『중국 도교의 철학과 문화 Ⅰ』, 부크크, 2019, 1～4, 18～25쪽.
50) 김윤경, 『한국도교사』, 문사철, 2022, 7쪽.
51) 한국의 사상 전통에서는 삼원론(삼원오행론, 삼원조화론)이 부동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사상전통에서는 음양론(음양오행론) 및 삼원론 전통이 공존하되 삼원론조차도 이원론으로 인식되는 등 실제로는 이원론 전통이 더 우세하였다. 한국선도에서는 삼원론(삼원오행론) 속에 음양론(음양오행론)의 구조가 녹아들어가 있으니 삼원론(삼원오행론)의 측면이 더 우세하다. 그래서 중국도교의 핵심이 음양론(음양오행론)이라면, 한국선도의 핵심은 삼원론(삼원오행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선도의 경우는 ‘본질’은 삼원론으로, ‘현상’은 이원론으로 설명한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본질・현상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음양이원론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본질’보다 ‘현상’에 더욱 주목하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논의는 정경희, 「한국선도의 ‘삼원오행론’- ‘음양오행론’의 포괄-」, 『동서철학연구』48, 2008 ; 「중국의 ‘음양오행론’과 한국선도의 ‘삼원오행론’」, 『동서철학연구』49, 2008 등 참조.

다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52]

중국의 신선사상은 속세를 떠나 선계에 살며 젊음을 유지한 채 장생불사하는 신선의 존재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도교교리 내지 도교사상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제왕, 제후 등의 현세적 권력이나 쾌락의 영속을 바라는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신선되기[成仙]를 갈구하여 불로장생을 기도하는 방향으로 사상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조식・복이・도인・방중 등의 각종 방법으로 신체단련 및 불사약을 구하거나 금단을 만들기 위해 애쓰거나 하여 방사가 생겨나 술수를 행하기도 하였다.[53] 중국도교의 신선사상은 불로장생・장생불사하여 신선되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선장생사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수행을 통해 성통하고 사회적 실천인 공완, 곧 홍익인간・재세이화를 이룬 다음 조천하여 신선이 된다는 한국의 신선사상과는 차별화됨을 알 수 있다. 곧 중국도교는 '장생불사 신선사상' 곧 '신선장생사상'인 반면에 한국선도는 '성통공완 신선사상' 곧 '신선공완사상'으로 정리된다.

그러면 한국도교는 중국도교와 차별화되는 철학이 있는가? 한국도교의 사상을 다루는 관점은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한국도교가 한국 고래의 민족고유신앙에 원류를 두고 있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도교가 중국의 도교, 즉 중국민족의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황로사상을 중심으로 정립된 후한 말기(2세기~3세기초) 장각(?~184)이 개창한 태평도와 장릉(34~156)이 개창한 오두미교를 도교의 원류로 보는 관점에서 한국도교를 설명하는 경우이다. 둘을 합쳐서 한국도교는 민족고유신앙 위에 중국의 황로사상, 신선사상, 유교・불교를 덧붙여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

『한국 도가 및 도교 자료 집성』에서 집성된 자료를 보면 중국도교의 주요

---

52) 정경희는 '상고 이래 한국선도가 중원으로 전파, 중국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선도의 존재론인 삼원오행론이 온전히 전수되지 못하였다. 본질론으로서의 삼원론과 현상론으로서의 음양이원론(음양오행론)이 분리되었으며, 특히 삼원오행론의 하위이론으로서 현상론일 뿐이었던 음양오행론이 본질론과 현상론을 아우르게 되어 종내 현상론을 압도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경희, 「한국선도 수행으로 바라본 중국도교의 내단 수행」, 『선도문화』13, 2012 참조.

53)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신선사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7.06. 검색)

자료인『도가귀감』,『도장류』,『독노자(讀老子)』,『참동계』등이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도참』,『비결』 등이 대부분이다.[54] 한국도교는 중국도교의 음양오행론, 신선사상 등을 그대로 차용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음양오행론이 도교라는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서 일반적 생활문화 전반에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역사의식

한국은 왕조마다 사서를 편찬할 정도로 역사의식이 강하였다. 이는 선도의 강한 역사의식 전통이 후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도경전『천부경』은 천제환인이 다스리던 환국으로부터 구전되었고,『삼일신고』는 신시개천의 시대에 나온 것이라 하였다.[55] 이로보아 상고 시기 선도가 등장함과 동시에 역사의식 면에서 역사를 선도적 역사관(선도사관)에서 바라보는 선도사서 들이 대거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6] 선도국가 단군조선의 와해 이후 선도는 점차 약화되고 대신 중원에서 유입된 외래삼교의 영향력이 높아져 갔다. 역사인식도 불교적 역사인식(불교사관), 유교적 역사인식(유교사관)이 등장하였다.

삼국시대에도 사서 편찬을 하였지만 현전하지 않고, 사서명만『삼국사기』에 전해온다. 고구려 영양왕 10년(600) 태학박사 이문진이『유기』백 권을 줄여 정리한『신집』5권,[57] 백제 근초고왕 30년(375) 박사 고흥이 저술한『서기』

---

54) 김낙필 외,『한국 도가 및 도교 자료 집성 – 한국 도장 편찬』(2007) 2차보고서 차례에 소개된 자료들의 서명 예시이다. 가. 參洞部 : 7종, 316,000여字.『參洞攷』,『易契』,『周易參洞契演說』,『龍虎祕訣』,『丹學指南』,『直指經』,『衆妙門』,『周易參洞契論說』.
나. 修行部 : 16종, 917,000여字.「修眞論」,『正心要訣』,『修心正經』,「養性門」,『二養編』,『壽養叢書類輯』,「身形」,『道藏輯要抄』,『閑情錄』,「攝生」,『葆養志』,『活人心方』,『靈寶局定靜篇』,『定靜要論』,「服氣」,「龍虎」.

55)『태백일사』「소도경전본훈」, “天符經 天帝桓國口傳之書也 … 三一神誥 本出於神市開天之世”

56)『조선왕조실록』세조・예종・성종 조에 내려진 수서령에『고조선비사』『대변설』『조대기』『삼성기』『삼성밀기』『통천록』『지공기』『표훈천사』『도증기』『지화록』등의 선도사서 이름이 다수 나온다.

57)『삼국사기』권 제20「고구려본기」제8 영양왕, “十一年 春正月 詔大學博士李文眞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時 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

가 있었다.[58] 신라의 경우 진흥왕 6년(545) 거칠부의 『국사』 편찬을 들 수 있는데, 국사 편찬은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잘잘못을 만대에 보이기 위함이라 하여[59] 국사 편찬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려 중엽에 이르러 유교적 역사인식이 점차 강해져 갔고 관찬사서로 전형적인 유교사서인 『삼국사기』(1145)가 편찬되었다. 이에 불교사서 『삼국유사』(1281)도 편찬되었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제일이라 하여 우리나라 역사보다 중국의 역사를 가르쳤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단군보다 기자가 강조되었다.

한국 고대의 역사인식에 입각한 선도사서들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현전하지는 않지만 최치원(857~?)이 인용하고 있는 『선사(仙史)』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서들이 후대의 기록에는 '고기', '단군고기', '잡기' 등으로 불리면서 현전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편찬에 널리 인용 참조되었다.

고려 초 선도사서로는 『신지비사』, 『단군기』, 『조대기』, 『구삼국사』 등이 있었다고 하고, 고려말 이명(李茗, 생몰년 미상)의 『진역유기』, 이암(李嵒, 1297~1364)의 『단군세기』 등이 나왔다. 이밖에 전형적인 선도사서는 아니지만 고려말 이규보(1168~1241)의 『동명왕편』, 이승휴(1224~1300)의 『제왕운기』도 있다. 이들은 단군과 동명왕을 같은 혈족관계로 인식하고 천손의 후예로 보는 등 고조선-고구려의 계통을 강조하여 선도적 역사인식이 배어 있는 사서로 평할 수 있다.

현전하는 선도사서로는 『징심록』「부도지」, 『환단고기』, 『규원사화』, 『단기고사』 등이 대표적이다.[60] 그 외의 사서들은 서명만 전해오고 있어 안타깝

---

58) 『삼국사기』권 제24「백제본기」제2 근초고왕, "冬十一月 王薨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59) 『삼국사기』권 제4「신라본기」제4 진흥왕, "六年 秋七月 伊飡異斯夫奏曰 國史者 記君臣之善惡 示褒貶於萬代 不有修撰 後代何觀 王深然之 命大阿飡居柒夫等 廣集文士 俾之修撰" ; 『三國史記』권 제44「열전」제4 거칠부, "眞興大王六年乙丑 承朝旨 集諸文士 修撰國史 加官波珍飡"

60) 열거한 사서들 중 일부는 진위논쟁에 휘말려 있는데, 『규원사화』, 『단기고사』, 『환단고기』(『단군세기』)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지사항이 아닌, 내용상 역사인식 면에서의 투철함은 부인할 수 없겠다. 역사인식의 투철함 때문에 진위논쟁이 생겨난다고 본다.

다. 조선시대 세조・예종・성종 연간에 내려진 수서령 속에 등장하는 서적명이 그러하다.[61] 세조3년(1457)년 팔도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였고, 예종1년(1469)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되 서적을 ‘바치거나 진고(陳告)한 자에게는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는 엄명이 내려졌으며, 성종 원년(1469) 다시 한 번 더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천문・지리・음양에 관한 책을 수납하여 서울로 올려보낼 것을 명하였다.[62]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조에서 역사인식과 정치이념이 다른 선도사서(선도서)들은 절대로 유포되면 안되는 위험요소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실록』에 이름이 열거된 서적들 중에는 후대에 발행된 선도사서 속의 인용문헌으로 등장하는 것들도 있으니,[63] 해당서적들의 존재를 입증하고 또 해당서적들이 유교가 금기(禁忌)하는 선도사서(선도서)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 선도사서들은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할’ 정도로 왜 금기시・위험시되었을까. 조선의 개창세력은 시대이념으로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을 도입하여

---

61) 대표적 예로, 조선시대 세조, 예종, 성종 대에 전국에 내려진 수서령 속에 등장하는 선도서를 들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7권, 세조3년(1457) 5월 26일, “諭八道觀察使曰 古朝鮮祕詞 大辯說 朝代記 周南逸士記 誌公記 表訓三聖密記 安含老元董仲三聖記 道證記 智異聖母河沙良訓 文泰山・王居仁・薛業等三人記錄 修撰企所 一百餘卷 動天錄 磨蝨錄 通天錄 壺中錄 地華錄 道詵 漢都讖記 等文書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以自願書冊回賜 其廣諭公私及寺社” ; 『예종실록』7권 예종1년(1469) 9월 18일, “傳于禮曹曰 周南逸士記 志公記 表訓天詞 三聖密記 道證記 智異聖母河沙良訓 文泰 玉居仁 薛業三人記 一百餘卷 壺中錄 地華錄 明鏡數 及凡干天文 地理 陰陽諸書家藏者 京中限十月晦日 呈承政院 外方近道十一月晦日 遠道十二月晦日 納所居邑 納者超二階 自願受賞者及公私賤口 賞綿布五十匹 隱匿不納者 許人陳告 告者依上項論賞 匿者處斬 其速諭中外” ; 『성종실록』1권, 성종 즉위년(1469) 12월 9일, “下書諸道觀察使曰 前者 周南逸士記 志公記 表訓天詞 三聖密記 道證記 智異聖母河少良訓 文泰 王居仁 薛業三人記一百餘卷 壺中錄 地華錄 明鏡數 及凡干天文 地理 陰陽諸書無遺搜覓上送事 曾已下諭 上項 明鏡數 以上九冊 太一金鏡式道詵讖記 依前諭上送 餘書勿更收納 其已收者還給”
박성수는 ‘조선 초기인 세조, 예종, 성종 연간에 세 차례나 귀중한 선도 관련 문서에 대해 압수령을 내렸다. 점잖게 수서령이라 했으나 분서갱유령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였다. (박성수, 「총설」, 『한국선도의 역사와 문화』, 2006, 38~39쪽)

62) 위 각주 내용 참조.

63) 『태백일사』「삼신오제본기」, “大辯經曰…” ; 『태백일사』「환국본기」, “朝代記曰…” ; 『태백일사』「환국본기」, “三聖密記 云…” 등 다수

국시(國是), 곧 국가의 공식적인 통치이념으로 삼았기에 성리학의 영향력은 갈수록 강화되어 유교사관에 의한 관찬 유교사서가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다. 조선 사회에서 성리학을 제외한 여타의 사상은 이단으로 배척되었기 때문에[闢異端論] 역사의식이 강한 선도는 성리학적 역사인식과는 대척적인 위치에 서게 되어 결코 공존할 수 없었다. 그리되니 선도사서는 국가(왕실)에 의해 수거(수서령, 압수령)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선도적 역사인식은 금기시되었으며, 선도는 비주류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되어 그 위상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선도사서로는 이맥(李陌, 1455~1528)의 『태백일사』, 북애자의 『규원사화』(1675)가 편찬되었고, 그리고 선맥을 짚어내고 있는 선도서 『청학집』, 『오계일지집』, 『백악총설』, 『해동이적』등이 있어 조선시대의 선도적 역사인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유교가 시의성을 상실한 이후 근대 선도는 민족종교 방식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특히 대종교계열에 의해 주도되었다. 김교헌, 박은식, 유근 등의 대종교계 사가들에 의해 『단조사고』(1911), 『신단실기』(1923), 『신단민사』(1923) 등이 편찬되어 선도적 역사인식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면 선도적 역사인식, 곧 선도사관이란 무엇인가. 여러 선도사서 중에서 선도사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징심록』『부도지』(이하 『부도지』)[64]와 『환단고기』이다.

첫째로 『부도지』에는 한국선도 고유의 존재론과 역사인식, 곧 존재론과 사관이 긴밀하게 밀착되어 잘 나타나 있는데, 한국선도 고유의 존재론인 삼원조화론이 '마고신화'의 방식으로, 사관으로는 '복본사관'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

64) 『징심록』은 신라 실성왕대 박제상(363~419)이 편찬한 선도사서이다. 박제상은 신라 제5대왕인 파사이사금에서 비롯된 박씨왕족 파사왕계 가문 출신이다. 이 가문은 아도갈문왕(참시선인), 물품파진찬(물계자), 박제상, 백결선생 등 신라 상고기를 대표하는 선가들을 집중 배출한 신라의 대표적인 선도 장로 가문이다. 『징심록』은 3교15지로 구성된 책이었으나, 현재는 제1지 『부도지』, 그리고 「소부도지」, 김시습의 『징심록추기』가 복원되어 전한다. 부분복원본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선도의 존재론 및 역사인식의 요체를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상고사 연구의 최고 자료로써 『환단고기』와 쌍벽을 이루며 상호 미비한 면을 보완해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경희, 「4세기 후반~5세기 초 신라의 선도와 박제상」, 『고조선단군학』27, 2012 ; 「한국선도와 『징심록』」, 『선도문화』14, 2013 참조.

이다. 『부도지』가 다루고 있는 시기는 마고성시대부터 신라 초까지로, 제1부는 마고성시대, 제2부는 마고성 출성 이후에서 고조선시대, 제3부는 신라초 곧 신라건국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존재의 본질이자 근원의 생명에너지인 일기・삼기를 ‘천부’로 명명하고 이 천부가 중심점・조화점 역할을 하는 천부조화론・삼원조화론이 제시되고 있다. 곧 인류는 물론 세상 모두가 조화로운 시기로, 인류사의 궁극적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2부는 인류의 첫 번째 변고인 ‘오미의 화’ 이후 황궁씨가 반드시 근본을 회복하겠다는 ‘복본’의 서약을 하고, 신표로서 천부(천부삼인)를 나누어준 다음 동서남북 사방으로 출성 분거하여 인류사를 형성해가는 부분이다. 마고성시대를 상징하는 천부가 황궁씨→유인씨→환인씨→환웅씨→임검씨→부루씨→읍루씨 7대 7천년에 걸쳐 전승되었는데 곧 복본의 기준이 한결같이 명확하게 지켜졌던 천부전승기이다. 제3부는 고조선의 읍루씨 이후 천부가 망실되었지만 그 전통이 제한적이나마 신라로 이어졌다고 보고 천부전승의 관점에서 신라건국사를 정리하였다. 특기할 것은 제3부를 ‘소부도지’라고 명명한 점이다. 곧 고조선까지는 ‘부도의 시대’, 이후 신라는 ‘소부도의 시대’로 바라본 것이다.[65]

『부도지』에는 고유한 삼원조화론(천부조화론)이, 또 마고성시대를 역사인식의 기준점으로 삼는 ‘복본사관’[66]이 나타나 있다. 곧 마고성시대를 선도 정통의 시작점으로 보고 언젠가는 복본하겠다는 복본사관은 한국선도사의 정통론으로 크게 주목된다.[67] 무엇보다 『부도지』의 복본사관은 선도사관 중에서

65) 박제상 저, 김은수 역, 『부도지』, 한문화, 2002 ; 정경희, 「『부도지』에 나타난 한국선도의 일・삼론」, 『선도문화』2, 2007 ; 「한국선도와 『澄心錄』」, 『선도문화』14, 2013 ; 석상순, 『한국의 ‘마고’ 전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등 참조.

66) ‘복본(復本)’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부도지』에 등장하는 독특한 용어이다. ‘복본사관’은 선도사관, 홍익사관으로도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다. (소대봉, 『선도 홍익사관의 전승 과정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67) 동양의 고전 역사학 전통에서는 대체로 특수한 존재론적 인식과 역사를 연결시켜 바라보는 경사일체론적 경향이 있어왔지만 어느 선에서 분명한 분리를 이루어 경학과 사학이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이루어왔다. 한국선도에서는 존재론과 역사가 상대적으로 밀착되는 경사일체론적 경향을 보인다. 한국선도는 여타 사상에 비해 존재론적인 인식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지향성이 강한 편으로, 이는 한국선도의 궁극적 목적이 깨달음[성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실천[공완], 곧 세상 속에 ‘홍익인간 재세이화’ 상태를 구현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도 외래삼교 전래 이전, 불교나 유교에 의해 습합되거나 왜곡되기 이전의 가장 시원적이면서도 선명하고 강렬한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상고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둘째는 삼성(특히 단군)과 상고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서는 『환단고기』이다. 『부도지』는 황궁씨-유인씨-환인씨-환웅씨 시대를 자세히 서술한데 비해 임검씨-부루씨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고, 그리고 고조선 이후의 역사는 신라 중심으로 서술되어 부여-고구려-백제 부분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사서가 『환단고기』이다.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가 한국상고사 4종을 엮어서 펴낸 역사서이다. 『삼성기』상・하편을 통해 한민족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군조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삼성이 환인・환웅・단군을 가리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군세기』는 제1대 왕검단군에서 제47대 고열가단군에 이르기까지의 편년사로, 47분 단군의 왕명과 재위기간, 업적 등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고고학과의 협업을 통해 단군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서술하는데 최고의 자료이다. 『북부여기』는 북부여의 역사와 가섭원부여, 곧 동부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태백일사』는 4종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데, 삼신 시대부터 고려국 편까지 8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의 생성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삼신오제본기」, 환인이 다스렸다는 환국의 역사를 담은 「환국본기」, 환웅이 다스렸다는 신시배달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신시본기」가 있다. 그리고, 단군조선은 진조선(진한)・마조선(마한)・번조선(번한)의 삼조선(삼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중 마한(마한세가 상・하)과 번한(번한세가 상・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한관경본기」가 있다. 『단군세기』가 진한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소도경전본훈」에는 한국선도의 경전인 『천부경』・『삼일신고』가 수록되어 있어 철학적 가치가 높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어서 고구려 역사를 다룬 「고구려국본기」, 대진국(발해)의 역사를 다룬 「대진국본기」, 고려의 역사를 다룬 「고려국본기」가 있다. 총 8편을 통해 우주의 생성에서부터 환국-신시배달국-단군조선-북부여-고구려-대진국-고려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환단고기』를 통해 환인시대를 조화기, 환웅시대를

교화기, 단군시대를 치화기로 바라보고 삼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한 점, 홍익인간・재세이화 이념을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서술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이렇듯 한국선도는 '복본', '조화', '홍익' 등의 철저한 기준점을 갖고 있어 역사의식이 매우 뚜렷하다. 선도사서 『부도지』와 『환단고기』는 상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상고사 복원을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반면에, 중국도교는 종교로서 개인의 불로장생이나 기복신앙 성향이 강하다. 개인의 신선되기 위한 방술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사회적 실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보이지 않고 도교 사서도 없다. 사회성도 거의 발견할 수 없다.[68] 한국도교도 중국도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양생에 관심을 보일 뿐 사회적 실천의식이나 역사인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도가사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서 이를 살펴보았다.

한영우(1975)는 선도사서 『규원사화』에 나타난 문화의식 및 역사의식, 조선후기 사학사적인 위치 등을 분석하면서, 『규원사화』를 일러 도가사서, 역사의식을 도가사학이라고 명명하여 사용하였다.[69] 그는 단군 이래의 고유신앙이라고 자처하는 신교(신도, 신선도, 선교, 화랑도)의 신봉자들을 '도가'라고 호칭하고, 신라시대의 『선사』, 고려초기의 각종 고기류, 고려말 이명의 『진역유기』, 조선 숙종대 북애의 『규원사화』(일명 단군실사檀君實史) 등을 '도가사

68) 류인희는 한국인의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으로 고조선・삼국시대의 사화(史話)에서 홍익인간・재세이화 이념을 찾아내서는, 이를 한국철학의 정체관념을 형성한 원초적 이념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원초적이념이 불교와 만나서 새로운 차원의 한국불교로 되었고, 마찬가지로 사회성이 없는 중국종교 도교가 한국에서는 사회성을 띠게 되어 풍수지리, 양생의학 같은 것이 발달하였다고 보고 있다.(류인희, 「한국철학의 형성과 지성사의 의미」, 『철학과 현실』, 1991년 가을호, 211~213쪽)

69) 숙종원년(1675) 저술되었다고 알려진 북애자의 『규원사화』는 주지하듯이 ①서문, ②조판기, ③태시기, ④단군기, ⑤만설의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저술동기를, 조판기는 일대주신 환인시대로 천지 개창과정 및 환웅의 하강을, 태시기는 환웅(신시씨)가 동방을 다스리던 시기의 역사를, 단군기는 환검(왕검단군)에서부터 고열가단군까지 47세 1195년의 역사를 적은 것이다. 만설은 저자 자신의 사관, 곧 자신의 신교적 우주관과 인생관, 문화의식 역사의식이 절실하게 피력되어 있다. (한영우, 「17세기의 반존화적 도가사학의 성장- 북애의 『규원사화』에 대하여-」, 『한국학보』1, 1975, 25~32쪽)

서'라고 호칭하고 있다. 그는 역사의식의 측면에서 조선후기의 사학은 존화사상의 탈피와 상고사연구의 심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존화사상에서 반존화사상으로의 전환에 도가사학의 영향이 작용하였고 대표적 사례로 현존하는 도가사서 중 『규원사화』(일명 단군실사)를 제시하고 있다.[70] 그는 『규원사화』에 나타난 문화의식과 역사의식을 분석하면서 '도가道家(선교仙教)의 숭상(崇尙)',[71] 또 '단군의 신교(神教)'[72]라고도 표현하였다. 물론 북애도 사상적 원류를 단군의 신교에 두고 중국의 도가·도교는 신교의 아류'[73]로 보았다.

한영우는 선교·신교라고 호칭해야 할 것을 도가(도가사서, 도가사학)라고 표현함으로써 후학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신채호가 밝힌 낭가사상 전통이 도가사상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규원사화』를 연구하였는데, 그가 1970년대에 유교사서·유교사학의 틈바구니에서 『규원사화』를 연구하여 유교사학의 존화사대사상을 배척하는 반존화적 사서로 파악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시대 유교사학이 존화사상에 입각한 정통론 정립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존화사상에서 반존화사상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정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를 선도사서 『규원사화』에서 읽어내었던 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만 그가 『규원사화』를 도가사서로 칭하고 논문제목에 도가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안타깝다. 비록 1970년대가 선도사서, 선도사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등장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선교·신교 용어는 신채호 이래 선학들이 익히 써왔던 용어인데 말이다.

그가 1970년대 사용한 '도가', '도가사서', '도가사학' 등의 용어는 2000년대 시각으로 바라보면 '선가', '선가사서', '선도사학'으로 완벽하게 치환할 수 있겠다. 이러할 때 단군조선사를 다룬 『규원사화』가 선도사서로서 지닌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된 것이라고 하겠다.

---

70) 한영우, 「17세기의 반존화적 도가사학의 성장- 북애의 『규원사화』에 대하여-」, 『한국학보』1, 1975, 23~25쪽.
71) 한영우, 위의 논문, 1975, 38쪽.
72) 한영우, 위의 논문, 1975, 38쪽.
73) 한영우, 위의 논문, 1975, 38쪽.

비록 도가사학이라고 명명되었다고 해서 정재서(1997)에 이르러 한국도교 연구사 사학 방면의 연구 성취로 제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는 '한국 문화 속의 도교현상을 비교적 빨리 인지하고 일찍부터 연구가 시발되어 풍성한 수확을 올린 분야가 문학이라고 평가하면서, 연구 성취 면에서 사학 방면에서의 도교연구는 의외로 부진한 편이어서 도교에 대한 역사적 탐구는 앞으로 많은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74]고 하였다. 그러면서 도교의 사학 연구로 한영우(1975)의 사례를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대로 『규원사화』는 선도사서로, 한영우의 연구는 선도사학의 연구성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가와 도교의 개념 구별은 한국도교 연구의 중요 쟁점 중의 하나[75]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도가사상은 노장철학에 한정되며, 도교사상은 신선사상, 민간도교 교단도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아, 철학으로서의 도가와 종교로서의 도교를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한영우는 『규원사화』에 나타난 반존화적 의식을 도교사학이 아닌, 도가사학이라 명명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재서의 견해대로 한영우의 연구가 도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면 이후 『규원사화』나 단군조선사와 관련한 도가사학 연구가 많이 일어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이는 도가사학이 아닌 선도사학 연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재서와 같은 이러한 연구사 정리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한국도교에는 도교사서가 없으니 도교사학도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4. 수행・실천

앞에서 한국선도 고유의 존재론에서 인간론이 파생되고, 인간론에서 수행론이, 수행론에서 실천론이 파생된다고 하였다.

한국선도 수행의 목적은 삼진 회복인데, 이는 성통과 공완의 단계를 거쳐 조천하는 것이다.[76] 가장 대표적인 삼수행법이 지감・조식・금촉이다. 성통은 삼수행을 통해 삼진을 회복하는 것, 곧 개체 차원의 삼진 회복으로 깨달음

74) 정재서, 「해방후 50년의 한국도교 연구사」, 『종교연구』14, 1997, 67쪽.
75) 김낙필, 「한국도교 연구의 중요 쟁점」, 『도교문화연구』14, 2000.
76) 『삼일신고』「천궁훈」, "惟性通功完 朝 永得快樂"

을 얻는 것이다. 공완은 개체 차원의 깨달음을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깨달음의 실천' 단계, 곧 홍익인간・재세이화(이화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깨달은 홍익인간들에 의해 사회적 실천을 이룬 세계가 이화세계인 것이다. 선도 수행자는 성통 그리고 공완이라는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존재의 회귀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귀착점이 '조(朝, 朝天, 천화)'이다. 곧 존재의 본질이자 근본 상태인 '하나[一, 신, 하느님, 삼신하느님]'로 되돌아가 합일(천인합일・신인합일)됨으로써 완결되는 것이다.[77]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상고시기 이래 한민족의 고유한 사상 전통을 풍류도, 풍월도, 신교, 고신교, 선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러 왔는데, 이는 상고시기 이래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 신선[仙・倧・侃]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합일의 상태가 '신선[仙]'이 되는 것이다. 한국선도에서는 선인(仙人)・선가(仙家)라고도 불렀는데, 상고시기 국가 창건이나 민족 형성의 단계에서 주로 건국시조신화의 주인공 모습으로 나타났다.[78] 곧 한국선도의 신선은 수행을 통한 성통, 사회적 실천인 공완을 다한 연후에 조천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이른바 '신선공완사상'으로 이름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도교는 외단, 내단, 양생법(방술) 등으로 불로장생・장생불사 우화등선하고자 한다. 선도와 도교의 수행적 측면이 다르다는 것은 신채호의 지적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신채호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도교 수행은 '방사(方士)를 보내 불사약을 구하게 하거나 곡식을 먹지 않고 도인법을 배우거나 하여 장생불사'하는데 있다고 하였다.[79] 또 중국도교는 '임금이 도교를 믿으면 대낮에 하늘에 오를 것을 바라고 사민이 도교를 믿으면 산속에 들어가 금단을 만드는'[80] 곧 개인의 불로장생・우화등선에 목적을 두었기에 신선장

77) 정경희, 「한국선도 수행의 실제」, 『선도문화』12, 2012 참조.

78) 최삼룡, 「선인설화로 본 한국 고유의 선가에 대한 연구」, 『도교와 한국사상』, 아세아문화사, 1987, 373쪽.

79) '선교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라면 한무제・선제가 방사(方士)를 바다로 보내 불사약을 구하게 하거나 또는 장량・이필같이 곡식을 먹지 않고 도인법을 배웠을 것인데 삼국시대 동명성왕과 대무신왕, 명림답부와 김유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신채호, 「동국고대선교고」, 대한매일신보, 1910.03.11.)

생사상이라 명명하겠다. 한국도교도 중국도교의 내단수련이나 양생술 등을 받아들여 양생법으로 심신단련, 건강관리 등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선도와 중국도교의 수행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동북아 신선문화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중원으로도 전파되었다. 중원으로 전파된 신선문화・신선사상은 한국선도의 존재론, 곧 삼원오행론 철학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결과 중국도교의 수행법 또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선도 수행이 상・중・하 3단전에 자리한 천・지・인 삼원을 깨우는 자성(내단) 중심이라면, 중국도교 수행은 내단과 함께 외단이 병행되고 오히려 외단의 비중이 높았다. 내단수행의 경우에도 형식면에서는 정・기・신 삼원수행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중단전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고 하단전과 상단전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도교 수행은 삼원수행 표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행의 관건인 중단전(마음)의 중심을 놓치게 되어 신체 단련 위주에 머무르고 대사회적 실천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81]

한국선도의 경우 수행을 통한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성통], 깨달음 이후의 사회적 실천[공완]을 행한 이후라야 ‘조천(朝, 朝天)’하게 된다고 한다. 혼자 수련하여 혼자 건강해지고 혼자 불로장생하는 것보다 개인적 깨달음을 사회적으로 실천하여 함께 건강해지는 삶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홍익인간・재세이화인 것이다. 한국선도의 수행은 성통・공완하여 홍익인간・재세이화를 이루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상 4가지 기준으로 한국선도와 중국도교・한국도교의 특징적인 내용을 비교해보았다. 근대 이후 한국선도 연구는 두 경향이 있어왔다. 하나는 신채호 이래 한국선도가 중국도교와는 차별화되는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라는 주체적 입장에서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이능화 이래 한국선도를 한국도교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연구하는 입장이었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양적으로는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전자의 학풍을 계승하고자 하는 선학들의 연구가 이어져 왔고 이에 힘입어 2000년대 초 이래 ‘한국선도’ 학문

80) 신채호, 「동국고대선교고」, 대한매일신보, 1910.03.11.
81) 정경희, 「한국선도 수행으로 바라본 중국도교의 내단 수행」, 『선도문화』13, 2012, 270쪽.

분야가 신생하여 분립하고 있다.

이제 도교 연구는 한국선도 영역과 구분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도교는 도장 편찬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선도의 경전 및 사서를 끌어안고 있다. 반면에 그간의 한국선도 연구성과는 외면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한국도교는 한국선도 연구성과를 대범하게 인정하고 한국선도의 변형태로서의 중국도교를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이유는 동북아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선도문화를 한국선도 및 한국도교 연구자들이 상호 조화롭게 연구하여 유라시아 전역 상고문화사가 선도적 역사의식의 관점에서 서술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오랜 동안의 문화사대주의 특히 중화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길이 될 것이다.

Ⅳ. 한국선도 자료는 끌어안고 연구성과는 외면하는 한국도교

정재서(1997)는 「해방후 50년의 한국도교 연구사」에서 『조선도교사』를 엮은 이능화를 일러 '한국도교 연구의 개조(開祖)'[82]라고 칭하였다. 그는 '이능화의 『조선도교사』는 한국도교를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통사적(通史的)으로 기술한 한국 도교 연구사상 기념비적인 노작'으로, '지금까지의 한국도교사 인식 체계나 자료범위도 『조선도교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83]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도교 학계의 입장에서는 이능화의 『조선도교사』라는 자료집 편찬이 감사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선도 입장에서는 한국도교가 한국선도의 자료를 끌어안으려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능화의 『조선

82) 정재서, 「해방후 50년의 한국도교 연구사」, 『종교연구』14, 1997, 69쪽.

83) 정재서는 통사적 도교사 기술로 평가하고 있지만(정재서, 「해방후 50년의 한국도교 연구사」, 『종교연구』14, 1997, 69쪽), 이종은은 『조선도교사』가 이능화 자신의 사관에 의한 도교사 저술은 아니고 자료집 집술이라고 보았다. 신교 자료를 『조선도교사』1~5장으로 구성한 이능화의 본 의도(?)를 해석해낼 자료가 출현되기를 기대한다.

도교사』에 대한 평가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84]

동북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교는 태생부터 상고시기의 선도의 영향으로 성립되었기에 도교 연구를 하다보면 그 뿌리(근원)가 되는 선도의 성격이 배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한국도교라는 이름으로 선도 부분을 포괄하여 연구하여 왔지만, 이제는 '한국선도'라는 분야가 분리되어 등장하였으니 연구영역을 구분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도교는 그동안 안고 있었던 한국선도 영역을 여전히 끌어안으려고 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1. 한국선도 자생설 : 한국도교 전래설

한국도교에 대한 자생설・전래설이 설왕설래하는구나 싶었는데, 한국선도의 기원설에 대한 논의[85]도 있어 짚어보기로 하였다. 우선 떠올려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중국도교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제외하고, 한국선도와 한국도교에 대해 자생설 전래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간략하게 챙기면 다음과 같다.(공유설 등 중간자적 입장은 제외함)

①한국선도 자생설 ②한국선도 전래설

③한국도교 자생설 ④한국도교 전래설

①과 ②에서, 한국선도는 상고시기 이래 동북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발전해온 고유한 사상체계를 의미하므로 ①은 성립하고 ②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양한 주장들 속에서 임채우(2011)는 한국선도의 자생설(발원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86] ③과 ④에서, 한국의 사상(철학)을 논할 때 삼국

84) 이능화 자신의 초기 저서 『조선기독교급외교사』(1928)를 보건대 그는 분명히 신교와 도교를 구별하였고, 그리고 그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 한국전쟁 중 산일되었다는 『조선신교원류고(朝鮮神教源流考)』가 있고, 또 『조선도교사』는 생전에는 출판되지 못했다가 그의 사후인 1959년 동국대에서 출간되어서 저술시기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85) 임채우, 「한국선도의 기원과 근거 문제」, 『도교문화연구』34, 2011.

86) 한동안 한국도교와 한국선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던 임채우의 다음 논리는 의미깊다고 보며, 한국철학계에서 허심탄회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교는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명제를 인정한다면 '한국에 도교가 있다'고 할 때, '그러므로 한국 도교는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결론이 형식논리적으로 성립된다. 이미 국제적으로 도교란 개념이 공용화되고 또 이런 선입관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개념체계 내에서

시대에 외래삼교인 유・불・도가 전래・수용되었고, 또 중국의 사상전통의 하나를 도교라고 이름하고 도교의 종주국이 중국이라고 한다. 곧 한국에서 도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사상 또는 신앙 전통이라고 보아 왔다. 한국도교는 중국도교와의 관련 속에서 한국에서 발달한 도교 전통을 지칭하는 개념이므로 ③은 성립되지 않고 ④는 성립된다. 곧 한국에서의 도교는 전래되었다는 전래설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최치원 이래 삼국시대 중원에서 전래된 외래삼교로 유교・불교・도교를 꼽지 않았던가. 중원에서 전래되어 한국에 수용・전개된 도교를 한국도교라고 갈래지운다면, 그래서 '한국도교'라는 철학 내지 종교학의 하위 분야가 설정된다면 이는 '한국도교의 전래설'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 된다.

부연하면, 인도에서 발생하여 한국으로 전래・수용된 불교를 한국불교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한국불교의 자생설이란 말이 성립되는가. 유교도 마찬가지다. 한국불교의 자생설, 한국유교의 자생설은 언급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국도교의 자생설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 부연하면 한국에 기독교가 도입된 이래 한국의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서양의 기독교에 비교하여 '한국기독교'라고 명명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기독교의 자생설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한국도교의 자생설'이라는 어법은 견강부회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자생설・전래설이 불거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신선사상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교에도 신선사상이 있고 한국도교에도 신선사상이 있다. 동북아 신선문화가 중원으로 전파되어 중국도교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의 도교가 삼국시대 한국으로 전래된 시기는 고구려 말기 무렵으로 알려져

한국도교의 독자성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는 한국도교보다는 한국선도로서 개념화하자고 주장한다. 만일 '선도'란 새로운 개념을 사용해서 위 명제들을 다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교는 중국에서 발생했다.' '한국에 선도가 있다' 이 두 개의 명제로부터 우리는 '그러므로 한국 선도는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결론이 아니라 '그렇다면 중국 도교와 한국 선도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명제를 얻게 된다. 이것이 한국의 유교나 불교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선도가 가지는 특수성이며, 여기에 한국선도가 성립되는 본질적 맥락이 있다. 한국선도가 그동안 유교나 불교처럼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진 못했더라도 우리의 토양에서 발생해서 나름대로 발전해오고 있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임채우, 「한국선도의 기원과 근거 문제」, 『도교문화연구』34, 60~63쪽)

있다. 한국에서 도교는 기존 단군조선의 신교가 바탕에 형성되어 있었기에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한국도교 신선사상의 원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선문화・신선사상의 원류는 배달국-단군조선시기 신선사상이었고, 이는 동북아 지역 고고학의 발굴 및 연구성과로 입증되고 있다. 이것을 일러 선교(신교, 곧 선도)라고 하였다. 그것이 후대에는 이능화 이래 한국도교 범주 내에 포괄되면서부터 이 원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신생분야로 한국선도가 분립되었으니 해결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한국도교는 중국에서 전래・수용된 도교가 한국선도 사상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수용・전개되고 변화되고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 중국도교와 차별화되는 ‘한국도교만의 독자성’을 정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한국의 도가 및 도교 자료 집성

그러면 왜 ‘한국도교 자생설’이라는 논의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선교, 단군조선의 신교, 곧 한국선도 자료를 한국도교 자료로 끌어안으려다 보니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87]

다음 사례를 보자. Ⅲ장에서 한국도교의 경전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다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한국 도가 및 도교 자료 집성 – 한국 도장 편찬』사업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사업은 1차년도보고서(2006), 2차년도보고서(2007), 최종 결과보고서(2009)가 보고되었다. 수행기간은 3년(2005.09.01.~2008.08.31.), 연구책임자 1명과 공동연구원 9명, 총 10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87) 예를 들면 김윤경은 「한국도교 연구의 경향과 전망」(2022)에서, 한국도교 및 한국선도를 모두 한국도교의 범주 내에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도교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한국선도의 선행 연구성과나 연구경향은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비해,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 소개된 선도경전 『천부경』을 마치 ‘도교사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여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김윤경, 「한국도교 연구의 경향과 전망」, 『한국철학논집』72, 한국철학사연구회, 2022, 251쪽)

연구자 측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도가(道家) 및 도교(道教) 문헌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그 특성을 중심으로 다시 분류, 정리하여 후발연구의 기초 토대자료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식에서 우리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도가 및 도교 자료를 한 곳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편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편의를 금후의 독자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자, 원문을 Data Base화하고 구독(句讀), 주석(註釋), 해제(解題) 및 교감(校勘) 작업을 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에서 수집 가공한 한국의 도가 및 도교 문헌자료는 총 66종 2,559,400여 글자에 달하며 원문 사진자료는 8913면에 이른다. 구체적인 연구 범주는 Ⅰ. 총설부(總說部) : 5종 총59,000여字, Ⅱ. 도가부(道家部) : 13종 주자료 및 「독노자(讀老子)」등 35종의 단편자료. 총 684,000여字, Ⅲ. 참동부(參洞部) : 7종, 316,000여字, Ⅳ. 수행부(修行部) : 16종, 917,000여字, Ⅴ. 종교부(宗教部) : 6종, 83,500여字, Ⅵ. 선도부(仙道部) : 17종, 517,400여字'의 6개 부로 분류되었다.[88]

필자는 연구 범주 중 Ⅵ. 선도부(仙道部)가 본고의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에 해당부분을 가져와 보았다.

> Ⅵ. 仙道部 : 17종 517,400여字
> 『三一神誥』『神事紀』『神理大典』『圖解三一神誥讀義』『會三經』『桓檀古記』『揆園史話』『海東傳道錄』『海東異蹟』『靑鶴集』『增補海東異蹟』『東國傳道祕記』『仙道(芝峯類說・外道部)』『金液還丹百問訣』『海客論』『朝鮮道教史』『精神哲學通編』[89]

88) 사업 신청시 초록에는 (3) 연차별 연구계획은 제1개년 연구주제: 1. 總說部, 2. 經典部 : 연구를 진행하며 자료를 조사. 제2개년 연구주제: 3. 參同部, 4. 修行部 : 연구진행 상황을 조정. 제3개년 연구주제: 5. 宗教部, 6. 歷史部, 7. 總評部 : 3개년 연구를 종합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전부를 '도가부'로, 역사부를 '선도부'로 용어를 바꾸었다.

89) 김낙필 외 9인, 『한국 도가 및 도교 자료 집성 – 한국 도장 편찬』(결과보고서), 2009, 3쪽.
필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으로 한국선도 자료들이 정리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한국선도 자료들이 '한국 도가 및 도교 자료'의 '선도부'로 하위분류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집성한 자료 제목을 훑어보았을 때 한국선도의 경전, 선도사서, 선도서류들, 그리고 이능화의 『조선도교사』,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이 망라되어 있는 반면에, 『천부경』, 『단기고사』는 안보였다. 자료 해제 부분으로 가서 찾아보았더니 『천부경』은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부분에 나와 있고[90] 『단기고사』는 안 보이는 걸 보니 아마도 한국의 도교 집성 자료로 선정받지 못한 것 같았다. 똑같이 진위논쟁에 시달리는 『환단고기』 『규원사화』는 넣었는데 『단기고사』는 왜 뺐는지 기준이 궁금하였다. 아마도 단기고사는 도교비판이 강해서 제외시켰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91]

그리고 이 사업의 결과물이 가져올 효과의 첫 번째가 ‘국학연구의 커다란 부족을 메우게 될 것이다’[92]라고 밝혔다. 필자는 이를 통해 한국도교학계는 여전히 한국선도의 자료들을 모두 한국도교의 자료 속에 포함시켜 끌어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이러한 자료집성 작업이 ‘국학연구’가 아닌 ‘한국학연구’[93]의 부족한 자료를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 한국선도의 으뜸 경전인 『천부경』

또 한 건이 더 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김윤경의 ‘조선도교사상사’ 연구이다.[94] 연구결과물은 보고서 1건, 단행본 1건이다. 본 사업의

90) 김낙필 외, 『한국 도가 및 도교 자료 집성 – 한국 도장 편찬』(결과보고서), 2009, 2099쪽.

91) 『단기고사』에는 뜻밖에도 주역 비판, 음양오행론 비판, 신선술 비판하는 내용이 군데군데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 비판 내용도 들어 있다. (고동영 역주, 『단기고사』, 흔뿌리, 1986, 190～193, 207쪽 참조)

92)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을 것이다. 1. 국학연구의 커다란 부족을 메우게 될 것이다. 2. 한국의 도가 및 도교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이하 하략〉

93) ‘국학’ 또는 ‘한국학’의 구분은 연구의 입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연구자의 국적 여부를 떠나서 국학은 한국인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국학은 국외자의 입장에서 수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체적 관점에서 한국을 인식하되 무엇을 인식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한국사의 출발점에서 시작된 고유의 사유체계인 ‘한국선도’가 국학 연구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된다고 본다. 더 자세한 논의는 정경희, 「‘한국선도’와 근대 이후의 ‘국학’ 담론」, 『동학학보』11권2호(통권14호), 2007 참조.

94) 한국연구재단 인문저술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조선도교사상사’ 연구이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6A4A01011510, 연구기간: 3년(2015.05.01.～2018.04.30., 연구책임자: 김

연구목표는 조선의 도교를 사상사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요약은 조선도교의 기원과 규정, 연구범주에 대해 기술할 것이고 조선도교사상사를 기술하는데 있어 주요한 중심 관점에 대해 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① 조선전기의 도교사상에 대한 탐구 심화, ②『해동전도록』,『해동이적』,『청학집』 등을 도교사상사 안에서 다루고, ③ 조선시대『참동계』에 대한 주석서와『음부경』 등 도교의 중심 경전에 대해「논설」등을 탐구, ④ 조선시대 구결서에 대해 탐구, ⑤ 조선시대 노자와 장자 주석서를 바탕으로 도교사상사를 고찰, ⑥조선 후기 민간도교 사상을 고찰할 것이라고 6가지가 열거되었다.[95] 본 사업명은 '조선도교사상사'였는데 연구결과물로 단행본『한국도교사』(2022)가 출판되었다.[96] 그리고 단행본 14~28쪽을 분리하여 연구논문「한국도교 연구의 경향과 전망」(2022)으로 발표되었다.[97]

김윤경의 저서『한국도교사』는 Ⅰ~Ⅵ편으로 구성되었다. Ⅰ편 한국도교사 서설, Ⅱ~Ⅵ편은 삼국・발해・고려시대의 도교, 조선 전기의 도가사상과 수련도교, 조선 후기 도가사상, 조선 후기 민간도교와 신종교, 오늘날 북한의 도교와 21세기 도교까지 다루고 있다. 한국도교사라는 이름으로 삼국시대 이후를 다루는 것은 저자가 한국도교 전공자로서 그럴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천부경』을 한국도교 경전으로 보이게끔 모호한 표현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제Ⅰ편 한국도교사 서설, '한국도교 연구의 두 가지 방향성'에서, 김윤경은 전병훈의『정신철학통편』「단군천부경」서언 부분을 짧게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마치 전병훈이 '『천부경』이 단군으로부터 내려온 도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믿었고, 도교사상을 통해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병훈이 누구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멋대로 짐작한단 말인가. 전병훈은 조선말기 유학자였다가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중국으로

윤경,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95)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3766&local_id=10090680 (검색일 : 2022.06.23.) ; 김윤경. 조선도교사상사. NRF KRM (Korean Research Memory), 2015.

96) 김윤경,『한국도교사』, 문사철, 2022.

97) 김윤경,「한국도교 연구의 경향과 전망」,『한국철학논집』72, 2022.

망명가서 도가 명산인 나부산에서 고공섬이라는 도사를 만나 도교수련을 하였고 『도장』 2천여 권을 연구하였다는 분으로, 당시 중국인들이 추앙하던 성철(聖哲) 39인 중에 속하였던 인물이다.

전병훈은 1919년 11월 이미 『정신철학통편』원고를 완성하여 출판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유학자 윤효정으로부터 천부경을 입수하였는데 이는 하늘이 주신 신이한 일이고 단군성조의 신령한 혼을 담고 있는 진전(眞傳)'이라고 밝혔다.[98] 그는 처음 천부경을 대했을 때 '글의 뜻이 매우 깊고 지극하며 뛰어나게 정밀하여 참으로 분명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조용히 며칠 동안 생각하고 나니 하루아침에 환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99]고 한다. 또 천부경의 진가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제목을 '한국의 신성한 「단군천부경[東韓神聖檀君天符經」'이라 이름붙이고 주해를 달아서 자신의 저서 『정신철학통편』의 첫머리로 삼음으로써, 천부경이 단군 이래의 철학적 이치를 담은 천서(天書)임을 만천하에 알렸던 것이다.[100] 그는 '선도(한국선도)'라는 용어는 몰랐겠지만 분명히 『천부경』을 일러 단군 이래의 '진전(眞傳)', '천서(天書)'라고 평가했다. 그랬기에 전병훈은 당연히 '『천부경』이 단군사상의 정수, 곧 선도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야 옳지 않을까.

이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저자인 김윤경이 단군 이래의 고유한 사상을 모두 한국도교로 바라보는데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고유의 한국도교',[101] '한국도교 선도'[102]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고유의 사상

98) 『精神哲學通編』卷之一「東韓神聖檀君天符經」註解緖言, "東賢仙眞崔致遠曰 檀君天符經八十一字神志篆 見於古碑 解其字 敬刻白山 秉薰謹按 崔公爲唐進士 而還韓成仙者 此經至昨年丁巳 始出韓西寧邊郡白山 有一道人桂延壽採藥白山 窮入山根 石壁見得此字 照寫云耳 余旣編成精神哲學 方謀付印之際 忽得此經 老儒尹孝定來交 誠天賜之神異也 … 確是我 檀君聖祖存神之眞傳 無疑也" (전병훈,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1982, 29쪽)

99) 『精神哲學通編』卷之一「東韓神聖檀君天符經」註解緖言, "然文義淵極超絶而精微 誠難透解也 潛思數日而一旦豁然" (전병훈,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1982, 29쪽)

100) 『精神哲學通編』卷之一 「東韓神聖檀君天符經」 註解緖言, "小子僭敢註解 以作精神學首篇烏乎 將普度環球於胎仙 世躋極樂之治者 其必在此乎 然則此非世界一身 五洲一家之天書者耶" (전병훈, 『정신철학통편』, 명문당, 1982, 30쪽)

101) 김윤경, 『한국도교사』, 문사철, 2022, 15쪽.

102) 김윤경, 『한국도교사』, 문사철, 2022, 20쪽.

체계인 ‘한국선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전래된 도교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한국선도’라는 새로운 학술 개념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한국선도 연구자들이 한국선도 시각으로 연구한 지 어언 20여 년이 흘러가고 있다. 한국도교 연구자들은 한국선도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과 사서 등의 자료는 ‘한국도교 선도’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끌어안으면서 한국선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외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도교라는 이름으로 선도를 연구하면 앞으로도 같은 반복이 일어날 것이다. 도교와는 다른 선도라는 고유사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선도는 도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말이다. 후학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선도’라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V. 맺음말: 한국선도 변형태로서의 중국도교 연구 방향 제안

본고에서는 한국선도를 중심으로 중국도교 및 한국도교의 개념과 영역을 비교하여보았다. 2000년대 초반 ‘한국선도’라는 새로운 학술개념어와 학문분야가 등장하였고 어언 20여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며, 이제 ‘한국선도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연구성과가 쌓여가고 있다.

근대 이후 한국선도 연구는 두 경향이 있어왔다. 하나는 신채호 이래 한국선도가 중국도교와는 차별화되는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라는 주체적 입장에서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이능화 이래 한국선도를 한국도교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연구하는 입장이었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양적으로는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전자의 학풍을 계승하고자 하는 선학들의 연구가 이어져 왔고 이에 힘입어 ‘한국선도’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한국선도는 기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 및 철학(사상), 역사 등을 포괄하는 한민족 고유의 사상 체계를 말한다. 반면에 중국도교는 신선장생사상을 기반으로 노장사상 및 유교・불교와 여러 민간신앙의 요소들을 받아들여

형성된 종교이다.

한국선도와 중국도교, 그리고 한국도교가 지니고 있는 내용을 경전, 철학(사상), 역사의식, 수행・실천 측면에서 서로 비교해 보았다. 경전의 경우, 한국선도는『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다. 중국도교는『도장』이라는 방대한 경전을 갖고 있고, 한국도교는 경전이라기보다는 도가 및 도교 자료를 집성하여 한국 도장을 편찬하고자 하고 있다. 철학은 기본적으로 한국선도는 삼원오행론 철학을 기반으로 성통・공완하여 홍익인간・재세이화하려는 신선문화, 곧 신선공완사상을 갖고 있다. 중국도교는 음양오행론 및 불로장생하여 우화등선하려는 신선장생사상을 갖고 있다. 한국선도는 왕조마다 사서를 편찬하는 등 역사의식이 강하여 선도사관・선도사학을 형성한 반면에, 중국도교는『도장(道藏)』이라는 방대한 경전을 갖고 있을 뿐 역사의식이 미비하고 사회적 실천의식도 없어서 도교사학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수행면에서도 한국선도는 천인합일・신인합일을 추구하면서, 수행을 통해 성통한 다음 공완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다. 중국도교는 불로장생 우화등선을 추구하여 외단, 내단, 양생술 등 개인 차원에 머물렀다. 한국도교는 중국도교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았다.

'한국선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성통・공완 곧 홍익인간・재세이화 하여야 조천한다는 의식이다.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사회적 임무를 완수했을 때 비로소 조천하여 신선이 된다는 사상, 곧 한국선도의 신선문화・신선사상이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형적 이념[103]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시민의식과 비슷하다. 이러한 선도 사상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불교, 유교가 들어와서 국학의 자리를 차지해도 인도불교와는 다른 한국불교 문화, 중국유교와는 다른 한국유교 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본다. 고구려 말기 이래 도교가 들어와서 국학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지만 도교는 한국적 토양에 맞게 변형되어 나름대로 도교문화를 이루어내었다.[104]

---

103) 류인희는 이러한 뿌리의식을 원형적 기본관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류인희,「한국철학의 형성과 지성사의 의미」,『철학과 현실』, 1991년 가을호, 211~213쪽.

104) 류인희는 중국종교로서 사회성을 발견할 수 없는 도교가 한국에서는 사회성이 강한 과학적 종교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그 예로 풍수지리, 양생의학을 제시하였다. 류인희,

김낙필(2001)은, 무엇을 위해 한국도교를 연구하는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우선적 목적이 있는가, 도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물음 제기에, 전자의 입장이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105] 한국에서의 도교 연구는 1980년대 이전에는 '한국 도교'라는 이름으로 선도를 포괄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학계에 통용되어졌다면,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도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한국불교 문화, 한국유교 문화처럼 도교가 한국땅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도교 문화를 연구하면, '한국도교'라는 이름 아래 '선도'가 연구되는 애매모호함이 사라지고, 그동안의 설왕설래해왔던 한국도교 자생설・전래설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 이래 '한국선도' 학문분야가 신생하여 분립하고 있다. 한국도교는 도장 편찬을 위해 '한국도교 선도부'라는 이름으로 한국선도의 경전 및 사서를 끌어안고 있는 반면에 그간의 한국선도 연구성과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한국도교는 한국선도 연구성과를 대범하게 인정하고 한국선도의 변형태로서의 중국도교 연구를 제안하였다. 한국도교는 중국의 도교와 관련하여 한국에 전래된 중국도교 및 한국인들에 의해 펼쳐졌던 한국의 도교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름에 걸맞을 것 같다. 이유는 동북아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선도문화를 한국선도 및 한국도교 연구자들이 상호 조화롭게 연구하여 유라시아 전역 상고문화사가 선도적 역사의식의 관점에서 서술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국선도'의 기준에서 유・불・도 외래삼교를 위시한 서구의 사상・문화를 총체적으로 끌어안는 것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되면 오랜 동안의 문화사대주의 특히 중화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선도가 기준점이 되어야 함은 결코 속좁은 국수주의가 아니라 성통・공완하고 홍익인간・재세이화 하자는 바람직한 사상(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 논문, 1991, 213쪽.

105) 김낙필, 「한국도교 연구의 발전적 방향」, 『도교문화연구』15, 2001, 430~431쪽.

참고문헌

1. 원전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징심록』「부도지」, 『환단고기』,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규원사화』, 『단기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2. 보고서

김낙필 외, 『한국 도가 및 도교 자료 집성 – 한국 도장 편찬』 1차년도보고서, 2차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06~2009.

김윤경, 『조선도교사상사』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5.

3. 단행본

국학연구원 편, 『한국선도의 역사와 문화』, 국제뇌교육대학원출판부, 2006.

김낙필, 『조선시대의 내단사상』, 대원출판, 4338(2005).

김윤경, 『한국도교사』, 문사철, 2022.

박제상, 김은수 역, 『부도지』, 한문화, 2002.

세계역사문화연구소 편, 『한국사의 단군인식과 단군운동』, 국제평화대학원출판부, 4339(2006).

송항룡, 『한국도교철학사』, 성대출판부, 1987.

윤창대, 『정신철학통편』, 우리출판사, 2004.

이능화, 『조선기독교급외교사』, 조선기독교창문사, 1928.

이능화, 이종은 역주,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1977.

이능화, 『조선도교사』, 한국학자료원, 2013.

이원국, 김낙필외 3인 옮김, 『내단:심신수련의 역사』1,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이종은, 『한국문학의 도교적 조명』, 보성문화사, 1986.

임재해, 『고조선문명과 신시문화』, 지식산업사, 2018.

전병훈, 『정신철학통편(전)』, 명문당, 1982.

정경희, 『백두산문명과 한민족의 형성』, 만권당, 2020.

정재서, 『한국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차주환, 『한국도교사상연구』, 서울대출판부, 1978.
차주환, 『한국의 도교사상』, 동화출판공사, 1984.
차주환, 「도교편」, 『한국학기초자료선집』 고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최대우,이경환, 『중국 도교의 철학과 문화Ⅰ』, 부크크, 2019.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 단재신채호선생전집간행위원회, 1998.
풍우란,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상, 하), 까치, 2007.
한국기독교사료연구소, 『이능화 조선기독교와 외교사』, 삼필문화사, 2010.
한무외,조여적 저, 이종은 역주, 『해동전도록・청학집』, 보성문화사, 2004.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1997.

4. 논문

국학연구원, 『한국선도 문헌의 위서론에 대한 재검토』, 국학연구원 제9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김낙필, 「한국도교 연구의 회고와 과제」, 『한국종교연구』1, 서강대 종교연구소, 1999.
김낙필, 「한국도교 연구의 중요 쟁점」, 『도교문화연구』14, 2000.
김낙필, 「한국도교 연구의 발전적 방향」, 『도교문화연구』15, 2001.
김성환, 「선가 자료 『청학집』의 자료적 검토」, 『선도문화』6, 2009.
김용휘, 「한국선도 전개와 신종교의 성립」, 『동양철학연구』55, 2008.
김윤경, 「한국도교 연구의 경향과 전망」, 『한국철학논집』72, 2022.
도광순, 「한국도교의 사적 연구」, 『도교학연구』7, 1991.
류인희, 「한국철학의 형성과 지성사의 의미」, 『철학과 현실』, 1991 가을호.
민영현, 「중국도가와 도교 그리고 한국 선의 사상에 관한 비교 연구」, 『선도문화』1, 2006.
민영현, 「『참전경』 해제와 그 문화사상적 의의」, 『선도문화』6, 2009.
민영현, 「『환단고기』의 철학적 가치와 그 이해」, 『선도문화』9, 2010.
박미라, 「『단기고사』의 판본과 문제」, 『선도문화』6, 2009.
박병섭, 「『삼성기 전』상・하편에 숨겨진 사실들」, 『선도문화』6, 2009.
서영대, 「한국 선도의 역사적 흐름」, 『선도문화』5, 2008.

석상순, 『한국의 ‘마고’ 전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석상순, 「근대 이후 한국선도 전통의 회복 과정과 ‘선교’ 등장」, 『선도문화』31, 2021.
소대봉, 『선도 홍익사관의 전승 과정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신채호, 「동국고대선교고」, 대한매일신보, 1910.
안창범, 「『환단고기』 위서론 비판」, 『한국종교사연구』, 한국종교사학회, 2002.
양은용, 「한국도교의 흐름과 신종교」, 『한국종교』31,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07.
우대석, 「『환단고기』 위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선도문화』9, 2010.
유철, 「『환단고기』위서론의 발생과 최근 동향」, 『세계환단학회지』5권1호, 2018.
이명우,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님을 입증하는 사료의 고찰」, 『세계환단학회지』6권2호, 2019.
이승호, 「한국선도문헌의 연구사 소고- 전승과정과 위작논쟁을 중심으로」, 『선도문화』6, 2009.
이종성, 「이능화 『조선도교사』의 학술사적 의의와 한계」, 『인문학연구』8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임채우, 「한국선도와 한국도교 : 두 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 『도교문화연구』29, 2008.
임채우, 「선도사서 『규원사화』해제-위작설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선도문화』6, 2009.
임채우, 「한국선도의 기원과 근거 문제」, 『도교문화연구』34, 2011.
임채우, 「『규원사화』의 천제 - 유교의 제천의례와 비교하여」, 『동양철학』34, 2011.
임채우, 「『규원사화』에 보이는 과학적 사유와 세계관」, 『동서철학연구』87, 2018.
정경희, 「한국선도의 수행법과 제천의례」, 『도교문화연구』 21, 2004.
정경희, 「『천부경』・『삼일신고』를 통해 본 한국선도의 일・삼・구론」, 『범한철학』44, 2007.
정경희, 「『부도지』에 나타난 한국선도의 일・삼론」, 『선도문화』2, 2007.
정경희, 「한국선도의 ‘삼신하느님’」, 『도교문화연구』26, 2007.
정경희, 「‘한국선도’와 근대 이후의 ‘국학’ 담론」, 『동학학보』14, 2007.
정경희, 「한국선도의 ‘삼원오행론’- ‘음양오행론’의 포괄」, 『동서철학연구』48, 2008.

정경희, 「중국의 음양오행론과 한국선도의 삼원오행론」, 『동서철학연구』49, 2008.
정경희, 「한국선도와 단군」, 『도교문화연구』31, 2009.
정경희, 「한국선도의 '일삼구론(삼원오행론)'에 나타난 존재의 생성・회귀론」, 『동서철학연구』53, 2009.
정경희, 「한국선도 수행의 실제」, 『선도문화』12, 2012.
정경희, 「한국선도 수행으로 바라본 중국도교의 내단 수행」, 『선도문화』13, 2012.
정경희, 「한국선도와 『澄心錄』」, 『선도문화』14, 2013.
정경희, 「백두산 서편의 제천유적과 B.C.4000년~A.D.600년경 요동・요서・한반도의 '환호를 두른 구릉성 제천시설'에 나타난 맥족의 선도제천문화권」, 『고조선단군학』40, 2019.
정경희, 「요동~요서 적석단총에 나타난 맥족(예맥족)의 이동 흐름」, 『동북아고대역사』2, 2020.
정경희, 「배달국 초 백두산 천평문화의 개시와 한민족(예맥족・새밝족・맥족)의 형성, 『선도문화』28, 2020.
정경희, 「흑수백산지구 소남산문화 '옥벽류(벽・환・결)'의 요서지구 흥륭와문화 '결'로의 전파: 유라시아 선도제천문화의 계승과 확산 사례」, 『유라시아문화』5, 2021.
정경희, 「흑수백산지구 소남산문화 '환호를 두른 구릉성 적석단총'의 요서지구 흥륭와문화로의 전파」, 『유라시아문화』6, 2022.
정경희, 「흑수백산지구 소남산문화의 옥・석기 조합 연구」, 『선도문화』32, 2022.
정욱재, 「『단조사고』 저술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사학보』12, 2005.
정재서, 「해방후 50년의 한국도교 연구사」, 『종교연구』14, 1997.
조인성, 「『규원사화』・『단기고사』・『환단고기』 위서론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논총』55, 2017.
차주환, 「한국도교의 공동체관」, 『도교문화연구』11, 1997.
최삼룡, 「仙人 설화로 본 한국 고유의 仙家에 대한 연구」, 『도교문화연구』1, 1987.
한영우, 「17세기 반존화적 도가사학의 성장 – 북애의 『규원사화』에 대하여」, 『한국학보』1, 1975.
한영우, 「행촌 이암과 『단군세기』」, 『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 일지사, 2002.

Abstract

The Distinction Theory of ‘Korean Sundo · Chinese Taoism · Korean Taoism’: A Proposal for a Research on Chinese Taoism as a modified form of Korean Sundo

Seok, Sang Soon
(Changwon Institute for Traditional Korean Cultural Stud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new academic field of ‘Korean Sundo’ that emerged in the early 2000’s with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Chinese Taoism. The Korean Sundo culture was hitherto viewed as being similar to Shamanism especially seen through the western lens. However, archaeological discoveries and achievements since the 1980’s are revealing that the Korean Sundo is the ShinSun (神仙) Thought which embodies a highly cultivated ways of life and a world view distinct in its qualities to shamanism and it also explains the origins of the North-east Asia ShinSun (神仙) Culture.

There have been two different tendencies in the research of the Korean Sundo since the modern era. One takes on the thoughts of Shin Chae-ho, that Korean Sundo is a thought system indigenous to Korea, distinguished from Chinese Taoism. The other follows on Lee Neung-hwa who understands Korean Sundo to be within the boundaries of Korean Taoism. The latter has been the mainstream point of view, at least in terms of the numbers of its researchers. However, the former school has continued to thrive, culminating in the emergence of the field of ‘Korean Sundo’.

Korean Sundo is an indigenous Korean system of thought that embraces the balance of the mind and the body based on training by way of the philosophy of energy (氣) that further extends to an awareness of social values and its history. On the other hand, the Chinese Taoism is a religion formed as a combination of Shinsun Long-life thought, Laotzu, Confucianism, Buddhism and various folk religion. The former is a Shinsun culture with active sense of humanitarian cause with endeavor to establish Hongik Ingan (弘益人間 People devoted to the betterment of humanity)・Jae Ihwa (在世理化 Creating a peaceful world) by way of Seongtong (性通 Connecting with heaven)・Gongwan (功完 Serving to the society) on a basis of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of three dimensions - Chun(天)・Ji(地)・In(人,) doctrine. The latter, Chinese Taoism, on the other hand, has its base on Shinsun Long-life thought by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of Yin and Yang, to ascend to heaven as a Taoist immortal by way of staying young and living long. Korean Sundo has also formed its way of viewing the history with emphasis on the awareness of the social consciousness through meditational training accompanied by the scriptures that contain the essence of Sundo philosophy. Whereas Chinese Taoism has a massive scripture, called『Dojang (道藏)』, it lack historical consciousness or awareness to serve the society, and therefore there isn't a branch of study in history in Taoism. Similarly, the same applies to Korean Taoism.

Since the early 2000's, the academic field of 'Korean Sundo' emerged and is standing independently. In response to this, the Korean Taoism is embracing the scriptures and historical studies of Korean Sundo in order to publish their own scriptures. Meanwhile, they do not accredit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Korean Sundo. We propose that the Korean Taoists should acknowledge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Korean Sundo, and that they should also study into the Chinese Taoism as a modified form of the Korean Sundo. This will enable the two fields to research more harmoniously as the Korean Taoism adopts the historical viewpoint from Korean Sundo, whereby the ancient cultural history that spread throughout Eastern Asia and Eurasian continent has its central philosophical origins

in Northeast Asia. Furthermore, this will enable the Korean philosophers to stand on their own feet at last free of the prolonged cultural toadyism, especially Sino-centrism.

Key words : Korean Sundo, Sundo culture, Shinsun culture, Shinsun thought, Korean Taoism, Chinese Taoism, Taoism, Shinsun Gongwan thought, Shinsun Long-life thought

투고일자 : 2022. 07. 15.
심사완료일자 : 2022. 08. 01.
게재확정일자 : 2022. 08. 09.